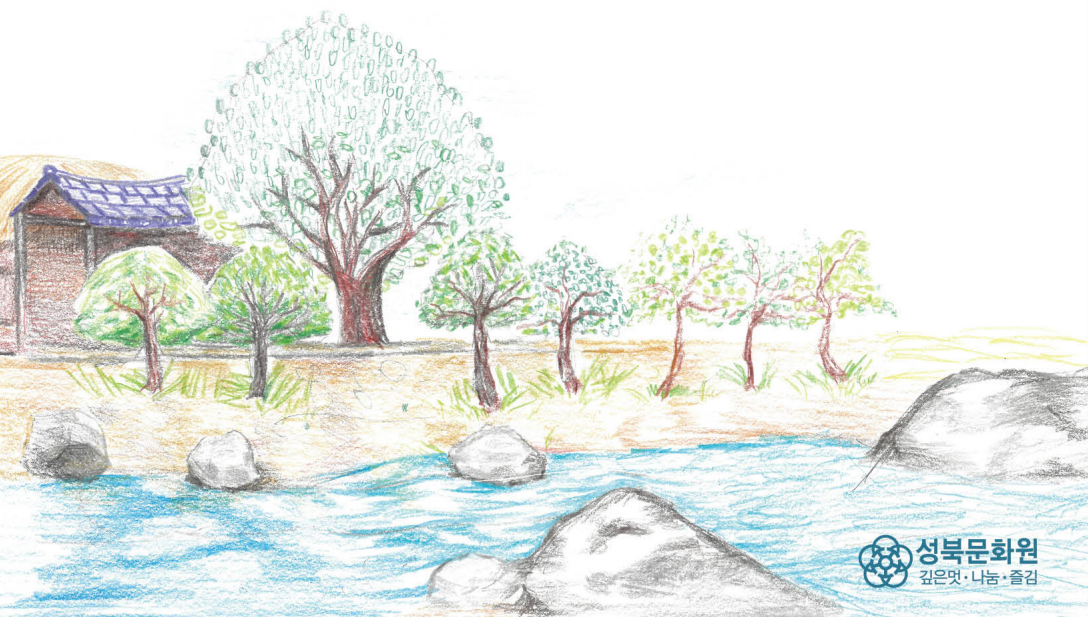


성북 사람들의 구슬생애사1

여름만 되면 정릉천에서 목욕하고 빨래하고



성북문화원
깊은맛·나눔·즐거움

**여름만 되면
정릉천에서 목욕하고 빨래하고**

여름만 되면 정릉천에서 목욕하고 빨래하고

- 손가정 토박이 손명옥의 살아온 이야기

구정숙·김지훈·양운주·정봉운·조혜원·최수민



성북문화원
깊은맛·나눔·즐김

성북 사람들의 구술생애사 1

여름만 되면 정릉천에서 목욕하고 빨래하고

- 손가정 토박이 손명옥의 살아온 이야기

구술자 손명옥

지은이 구정숙·김지훈·양윤주·정봉운·조혜원·최수민

엮은이 김지훈

디자인 노세진

펴낸이 조태권

펴낸곳 성북문화원

주소 서울시 성북구 성북로4길 13-8

전화 02-765-1611

팩스 02-765-1619

성북문화원 www.isbcc.or.kr

성북마을아카이브 archive.sb.go.kr

(C) 손명옥 · 성북문화원, 2020

ISBN 979-11-954544-2-6 03090

발행일 2020년 12월 30일 초판 1쇄

이 책은 성북구청과 성북문화원이 협력하여 진행하는
‘성북구 마을기록 아카이브 사업’의 일환으로 제작되었습니다.
2020년도 주민기록단 교육의 수강생 실습 결과물을 토대로
성북문화원에서 수정과 보완을 거쳐 원고를 완성하였습니다.

2020년도 주민기록단 교육

기획 강성봉

교육 김영미

운영 조성윤·김도현·김지훈·김진흠

미술 교육 안혜리·이새빛·조혜수·최은영

<발간에 부쳐>

성북의 역사 만들기

성북문화원은 2018년 1월부터 성북구청과 협력하여 ‘성북구 마을 기록 아카이브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성북 지역을 기반으로 한 공동체의 기록을 모으고 보존하고 공유하는 일을 목적으로 하며, 디지털 아카이브 구축과 주민기록단 양성을 주요 과제로 삼고 있습니다.

사업 첫해에 자료를 수집하고 기록물 관리시스템을 구축하였으며, 다음 해인 2019년 말에는 ‘성북마을아카이브’라는 홈페이지를 열었습니다. 지금까지 성북문화원에서 정리한 지역 콘텐츠와 기록물을 검색 혹은 필터를 통해 탐색할 수 있는 공간입니다. 이후로 꾸준히 온라인 공간을 통해 마을기록 관련 다양한 콘텐츠를 공유하고 있습니다.

마을아카이브를 구축하는 데에는 성북문화원에서 다년간 축적한 연구 성과와 마을아카이브팀의 기록물 수집과 생산의 노력이 바탕이 되었지만, 이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지역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이 생생하게 담긴 마을아카이브가 되기 위해서는 주민기록단이 필요합니다. 주민(住民)은 마을에 사는 사람이면서 동시에 이 마을의 주인이라는 의미의 주민(主民)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주민이 자기가 기록하고 싶은 것을 직접 찾고 자신의 삶을 직접 기록하는

과정과 거기에서 만들어지는 기록물이야말로 우리 성북마을아카이브의 보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2018년에 시범운영을 통해 시작된 주민기록단 구술사 교육은 2019년에 두 차례 구술 인터뷰 기초교육을 거쳐, 올해 구술 글쓰기 심화교육을 진행했습니다. 이번 교육에 참여한 열네 분의 수강생 중에는 작년 교육을 수료하신 분도 있고 새로 참여하신 분도 있었습니다. 지역에 대한 애정을 품고 부지런히 교육과정을 따라와 이렇게 빛나는 성과를 내주신 주민기록단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자신의 삶을 기꺼이 펼쳐내어 공동체와 공유해주신 구술자 세 분께 감사드립니다. 첫해부터 지금까지 3년간 구술사 강의를 맡아 열정적으로 수강생들을 이끌어주신 국민대학교 한국역사학과 김영미 교수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특별히 구술자가 미술로 생애사를 표현하는 활동에 도움을 준 국민대학교 미술학부 안혜리 교수와 학생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주민기록단 운영을 위해 애쓰는 성북문화원 마을아카이브팀에 감사드립니다.

성북문화원은 앞으로 주민기록단이 우리 지역에서 펼칠 활약을 기대하며 주민기록단이 걸어가는 길을 닦는 일에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2020년 12월

성북문화원장 조 태 권

<축하의 글>

주민이 주체가 되는 역사쓰기

성북문화원의 주민기록단 역사강좌가 성북구 주민생애사 시리즈의 출간으로 이어지게 되어 대단히 기쁩니다. 이 작업을 기획하여 성공적으로 이끌어간 성북문화원과 성북구청 관계자분들에게 축하드립니다. 아마도 서울이라는 대도시에서 지역주민들이 자신의 경험을 지역사회와 공유하고 또 이웃의 삶을 경청하여 책으로 엮어내는 이러한 뜻 깊고 아름다운 작업을 진행할 수 있었던 것은 성북구였기에 가능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근대 100년의 역사에서 많은 지식인과 문화인들이 이곳 성북구에 기거하였으며, 지금도 지역사회에 그러한 전통이 이어져오고 있습니다. 이처럼 지역의 역사성이 이 시리즈의 출간을 가능하게 했다고 생각합니다.

흔히 역사의 대중화란 전문 역사가가 대중들에게 쉽게 역사적 사실을 전달하는 것으로 이해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시민강좌의 대부분이 전문가가 대중들에게 지식을 쉽게 전달하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역사는 인간 경험의 총체라고 할 때 역사는 전문가만이 해석하고 생산할 수 있는 영역은 아닐 것입니다. 역사를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어느 정도 훈련을 마친 뒤 자신의 관심과 요구에 맞게 과거를 해석하고 의미화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저는 우연히 처음 이 강좌를 맡아서 몇 차례 구술사 방법론 강의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참여하는 시민들의 열의가 높고 지역사에 관심을 가지는 주민들이 많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특히 성북구는 서울의 어떤 지역보다 주거공간으로서의 오랜 역사성을 지니고 있으며, 몇 대를 살아온 토박이 주민들의 비율도 높습니다. 그런 분들이 마을기록단 역사강좌에 참여하여 지역의 역사를 남기려는 열정을 보여주었습니다.

이러한 참여자들의 열의를 바탕으로 구술생애사 책 만들기 강좌가 진행되었습니다. 대중강좌에 참여한 시민들이 책을 만들 수 있을까? 특강 담당자였던 저는 많은 걱정을 했습니다. 그러나 성북문화원 주민기록단 연구원들의 지원과 시민 역사가들의 예상을 뛰어넘는 참여로 힘든 순간들을 넘겼습니다. 또한 여기에는 자신들의 살아온 이야기를 지역의 역사적 자원으로 내어놓으신 구술자들의 나눔 의지가 큰 동력이 되었습니다.

뛰어난 위인들만이 아니라 보통사람들의 성실한 일상생활이 대한민국의 성공신화를 만들어온 원동력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한 분들의 삶을 역사적으로 자리매김하고 기린다면 우리 공동체가 더 훈훈하고 자부심 넘치는 공간이 되지 않을까요? 앞으로도 성북문화원의 이 시리즈가 지속적으로 출간되어 평범한 사람들의 위대한 이야기들로 우리 근현대사를 더욱 풍부하게 이해할 수 있는 자산이 되길 기원합니다.

2020년 12월

국민대학교 한국역사학과 교수 김 영 미

머 리 말

대대로 그 땅에서 나서 오래도록 살아 내려오는 사람을 토박이라고 한다. 그렇다면, 정릉3동 정릉시장 일대에서 오랫동안 터를 잡고 살아온 손가정(孫哥亭)마을의 후손이며, 여전히 그곳에서 살아가는 손명옥은 토박이이다. 그런 까닭에 이 책은 손명옥의 살아온 이야기이자, 손가정 마을의 과거 모습과 변화에 대한 기록이기도 하다. 주제는 구술내용에 따라 ‘1부. 어린 시절과 가족이야기’, ‘2부. 손가정 마을’, ‘3부. 정릉의 옛 풍경’, ‘4부. 빛나는 요리사’로 크게 네 부분으로 나누었다. 1, 3, 4부가 개인 경험에 집중했다면, 2부는 구술자의 생활 터전인 손가정마을, 즉 정릉동의 장소와 장소경험에 대한 이야기가 주를 이룬다. 각 주제별로 내용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1부는 구술자의 어린 시절과 가족에 대한 기억을 몇 가지 일화와 함께 이야기하였다. 미아리 지역에서 상당한 재력가였던 외갓집이야기, 손재주가 좋았던 아버지에 대한 애뜻함, 고모와 호랭이할머니와의 일화 등 다양한 가족이야기를 소소하게 풀어냈다. 또한 아버지의 6·25전쟁 경험, 구술자의 결혼이야기가 흥미진진하다.

2부는 구술자의 집 설명부터, 손가정의 공청과 노인정, 정릉시장으로 공간 범위를 넓혀가며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공청은 현재의 마을회관과 성격이 비슷한 마을공동체를 위한 장소였다. 공청이 사라지고, 다른 장소에 노인정을 마련했지만 이마저도 정릉천 복원공사로

없어졌다. 이 구술이 더 의미가 있는 건, 손가정의 토박이로 살면서 직접 목격했던 손가정 마을의 변화와 공동체 해체를 담담히 풀어내고 있다는 점이다.

3부는 정릉의 옛 모습을 정릉천과 그 주변에서 일어난 일들을 중심으로 이야기하고 있다. 북한산 고아원의 상세한 위치와 당시 분위기, 정릉시장의 변천과정은 중요한 정보였다. 특히 “들국화 천지였던 사촌 밭”에 가는 길과 “봄이 오면 산나물 뜯으러”다녔던 경험은 다른 기억에 비해 또렷하게 남아있다.

4부는 구술자가 요리사를 시작하게 된 계기와 외국 한국대사관에 서 오랫동안 요리사 생활한 이야기를 재미있는 일화를 중심으로 소개하고 있다. 주변에서 외국 한국대사관 요리사로 근무했던 사람을 만나기란 쉽지 않다. 그런 까닭에 구술자의 이야기는 개인적인 체험을 넘어서, 읽는 이들에게 흥미와 정보를 제공해주고 있다.

이처럼 이 책은 좁게는 손가정, 넓게는 정릉동의 과거 모습이 한 인물의 경험과 엮어지면서 입체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물론 손가정과 정릉의 모습이 다른 분들의 기억과 다를 수도 있다. 그러나 1999년부터 간헐적으로 해외생활을 해온 손명옥 구술자에게는 삶을 떠받치는 토대였던 정릉의 기억은 그녀의 방식대로 또렷하고 아름답게 펼쳐진다. 또한 손명옥 구술자의 이야기 곳곳에서 묻어나는 정릉동의 애정도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2020년 12월

성북문화원 마을아카이브팀 연구원 김 지 훈

차례

발간사	6
축사	8
머리말	10
약력	15

1부 어린 시절과 가족이야기

저 삼양동 끝까지 외갓집이었던 것 같아	19
엄마가 결혼하고 사흘 동안이나 아버지 얼굴을 못 봤대요	22
우리 할머니 별명이 호랭이 할머니야	23
승덕초등학교 18회 졸업	25
아버지가 썰매 만들어 주셔가지고 썰매 많이 탔지	28
남이 하는 건 빠지지 않고 다 했어	28
불량식품인 줄 모르고 먹었지	30
가을운동회의 추억	31
지금도 보고 싶은 허옥순 선생님	32
어렸을 때 군인이 되고 싶었어요	33
이복으로 끌려가다가 우리 아버지하고 다섯 분이 탈출	33
연애도 해보지 못하고 결혼했거든	35
우리 때는 신혼여행이라곤 온양온천이었어	36
결혼하고 다시 들어와서 정릉에 지금까지 살았어요	37

2부 손가정 마을

손가정의 위치	43
우리집의 모습	45
청와대 안에 둘 일은 다 아버지가 하셨어요	47
공청이 회관처럼 크게 있었어요	50
손가정 노인정	52
손가정에서 산신제를 지냈어요	54
전을 부쳐도 대나무로 끼워서 녹두전을 부쳤어요	55

창동에다가 선산을 사 놓고	56
그러니까 한 집안이야	57

3부 정릉의 옛 풍경

여름만 되면 정릉천에서 목욕하고 빨래하고	61
정릉에 만식이 다리라는 돌다리가 있었어요	63
들국화 천지였던 사촌 밭에 가는 길	64
봄이 오면 산나물 뜯으러 가고	65
집 주변에 북한산 고아원이 있었어요	66
정릉 사람들이 다 먹는 대동 우물	70
뽕으로 만두 해 먹고 그랬어요	71
돈암동은 전차를 타고 길음시장은 물건을 사고	72
“야 청수장으로 버들가지 꺾으러 가자!” 그래요	73
정릉이라는 데가 너무 초라해진 것 같애	75
개천으로 놔뒀으면 참 좋았을 건데	77
내가 정릉에서 태어난 게 잘했다는 생각을 많이 해	79

4부 빛나는 요리사

한전을 그만두고 양품점을 했어요	83
요리사의 길을 이끌어준 고마운 선배님	84
해외 한국대사관 요리사를 시작하다	86
왼쪽에는 가축이 있고, 오른쪽에는 불씨가 있어	90
브로큰 잉글리시로 말해도 요리로 다 통하거든요	91
한식을 맛보고 연거푸 “원더풀, 원더풀”	92
새벽 장보기부터 저녁 디저트까지, 앉아 있을 틈이 없지	94
남자는 호텔요리사로, 여자는 출장요리사로	95
우리나라 재벌들을 다 요리로 만났어	95
모르면 힘들고, 알면 너무 쉬운 게 음식이야	96
단 한 가지, “내가 다달이 음식을 해서 대접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97

에필로그	98
------	----



약력

- 1953년 서울 성북구 정릉동에서 태어남
- 1966년 송덕초등학교 졸업(18회)
- 1972년 한국전력에서 근무
- 1975년 명동 코리아나 백화점에서 근무
- 1976년 24살에 결혼, 이화동으로 이사
- 1977년 첫째딸 출산, 정릉으로 이사 후 줄곧 정릉 거주
- 1978년 요리를 배우기 시작
- 1993년 출장 요리사로 활동하기 시작
- 1999년 미국 샌프란시스코 한국총영사관 요리사로 첫 근무
- 2000년 에티오피아 한국대사관 요리사를 시작으로 네팔(3회),
러시아, 벨기에에서 근무
- 현 재 후배와 함께 출장 요리사로 활동
한식·양식·중식 국가기술자격증 보유

면담정보

면담자

1차 : 이승희

2차 : 구정숙, 양윤주, 정봉운, 조혜원, 최수민

면담장소

1차 : 성북구 평생학습관 소강의실

2차 : 성북문화원 소강당

면담일시

1차 : 2019년 7월 5일

2차 : 2020년 10월 22일

※ 공식 면담 이외에 수차례 비공식 인터뷰 진행

01

어린 시절과 가족이야기



저 삼양동 끝까지 외갓집이었던 것 같아

저희 어머니는 미아리에서 굉장한 부잣집에서 태어나셨어요. 외할아버지가 말을 많이 키우셨고 말을 빌려주는 일을 하셨대요. 미아리에서 사람들이 말을 빌리러 오면 말을 빌려줘요. 사람들이 말을 타고 다녔거든. 외할아버지도 나 아주 어렸을 때 말을 타고 오셨어요. 그럼 아버지가 또 그 말을 타고 나가시고. 옛날 사람들은 똥 싸면 그냥 있었을 거 같아. 치우지도 않고. 외할아버지가 말을 빌려주는 일만 하신 게 아니고, 서울사람 치고 농사를 굉장히 많이 지었어요. 콩나물도 하시고. 농사를 지어도 그때는 뭐든지 그렇게 잘 됐다 그러더라고. 토란 같은 걸 캐면 원산까지 말에 싣고 가서 팔고 그랬나 봐.

그런데 외할아버지의 아버지가 원래 말 장사를 하셨는데, 말을 사러 만주에 가셨다가 못 돌아오셨어. 돈을 많이 가지고 가셨는데 누가 돈을 빼앗고 못 돌아오시게 한 거 같아. 외증조할아버지가 안 돌아오시니까 외할아버지가 큰아들이어서 동생들 키우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대. 그래도 착실하게 사셨다고 그러더라고. 옛날부터 외증조할아버지가 땅을 많이 갖고 있으니까 외증조할아버지 안 돌아오시고부터는 외할아버지가 그걸 맡아서 하셨지.

당시 외갓집만 해도 집이 커서 마당에 큰 우물이 있었어. 대문이 크게 세 개나 있었고. 부뚜막에 가마솥을 쪽 걸어 놓고 그 밑으로 장독대가 있었지. 지금 영훈초등학교 자리부터 저 삼양동 끝까지 외갓집이었던 것 같아. 굉장히 넓었어요. 논밭이 많았지. 수백 평이 뭐야? 수천 평은 되지. 밤나무도 많았고, 그러니 외갓집은 어렸을 때부터 동네사람들이 정릉에서도 부갓집이라고 그랬지. 옛날에는 정릉에서 학교를 미아리로 다녔어요. 지금은 성암국제무역고등학교가 들어서 있어. 옛날에는 인창중학교¹야. 그래서 아버지하고 아버지 친구들은 다 거기서 다녔어요. 학교가 그것밖에 없었나봐. 터는 그대로고 이름만 바뀐 거지. 엄마도 다니고, 정릉사람들이 많이 다녔지. 여자고 남자고 인창중학교 다녔지.

집 뒤에는 향나무밭이 있었어요. 지금 사람들은 잘 모르는데 옛날에는 보록원(寶綠園)이라고 그러면 다 알아.

1 인창중학교의 전신은 인창의숙(仁昌義塾)이다. 인창의숙은 1922년 성암 손창원 선생이 민족교육을 위하여 설립한 교육기관으로 인창중학교를 포함하여, 경기초등학교, 인창고등학교, 성암여자중학교, 성암여자정보산업고등학교, 경기대학교의 전신이다. 현재 인창의숙 터에는 성암국제무역고등학교가 있다.(출처: 성암국제무역고등학교 홈페이지)

보록원²은 향나무를 심어서 파는 향나무밭이었는데 굉장히 컸어요. 나 어렸을 때 보면 영화 촬영하러 많이 오더라고. 옛날에 ‘흙’(김기영 감독의 1978년 영화로 추정) 같은 영화 있었잖아. 그것도 촬영하고 영화 찍으러 많이 왔어요. 보록원은 고모할아버지 댁인데 그 고모할아버지가 북악스카이웨이(1968년 완공)를 놓으셨어. 그래서 삼촌들이 도로를 놓아 주고 그 대가로 팔각정을 한 20년간 운영하셨어. 지금은 안 하셔. 옛날에 그 고모할아버지가 이병철(李秉喆, 1910-1987)이 하고 “네가 부자냐? 내가 부자냐?”했었대.



보록원 광고(1972)

- 2 보록원(寶綠園)은 박원순(朴元淳) 씨가 1923년, 강북구 미아동 403번지 일대에서 조경수를 생산하여 가로수 등의 조경 사업을 위한 농원을 조성하면서 시작되었다. 여기서 생산된 수목은 전국 각지의 신작로 가로수로 공급되었으며 해방과 6·25전쟁 이후에도 계속 유지되었다. 1970년대부터 사업상 어려움을 겪다가 1972년 하반기에 폐원되었다. 1973년 택지로 바뀌면서, 그 자리에 주택이 들어섰다.(출처: 네이버블로그 - 황악 위례마을 이야기)

엄마가 결혼하고 사흘 동안이나 아버지 얼굴을 못 봤대요

외할아버지가 머슴도 많이 두고 진짜 부자였는데, 어머니가 정릉으로 시집을 오게 되었어요. 우리 아버지가 정릉에서 미아리에 있는 인창중학교에 다녔어요. 정릉 사람들이 거의 인창중학교로 공부하러 다녔나 봐. 그래서 우리 엄마도 거기 다니면서 공부를 하셨어요. 그 당시 아버지한테 중매가 들어왔는데, 엄마는 자기가 생각했던 사람이 중매 들어온 사람인가보다 그랬대요. 옛날엔 결혼하면 여자는 천장을 쳐다보지 말라고 했대네. 나 원 참, 그게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어. 그래서 엄마가 사흘 동안이나 아버지 얼굴을 못 봤대요. 고개를 안 들었던 거지. 옛날에는 신랑, 신부가 서로 얼굴을 안 보고 결혼했잖아요. 사흘 만에 아버지 얼굴을 딱 보니까 자기가 생각했던 사람이 아니더라. 얼마나 놀랐겠어. 어머니가 그 얘기 하시면 우리가 그랬어요. “아니 엄마, 궁금한데 밥 차려주면서 볼 수 있지. 어떻게 안 봐?” 근데 진짜 안 쳐다봤대요. 그래도 두 분이 금실이 좋으셨어요. 우리 아버지가 91세에 돌아가셨어요. 2011년에. 엄마는 올해(2019년) 95세로 돌아가셨어. 아버지가 다섯 살 더 많으셨어요.

저희는 정릉 살면서 불편한 점이 없었어요. 비가 와도 홍수가 안 나는 지역이에요. 손가정 사람들은 정릉에서도 잘 살았어요. 옛날에는 재산을 큰아들만 쫓았잖아요. 그래서 큰아들은 다 부자였어. 우리 아버지 같은 경우엔 막내니까 처음에는 우리 집이 아니고 남의 집 전채를 빌려서 살았어요. 당시에 정릉 사람들이 1년에 얼마씩 집주인에게 주고 살았어. 옛날에 전세는 없었던 거 같아. 1년에 쌀 한 가마니

값을 계산해서 돈을 준단가. 농사를 안 지으니까 쌀이나 콩을 주는 건 아닌데 서울사람들도 그거 계산해서 1년 치를 준 거 같아요. 근데 우리는 집을 금방 샀어요. 어머니, 아버지가 할아버지 집에서 분가하셨는데, 우리 외갓집이 엄청 부자였어. 우리 친가에서는 안 도와주셨는데, 외가 쪽에서 도와주셔서 집을 그 당시에 650만 원을 주고 사셨다고 해.



어머니와 아버지

우리 할머니 별명이 호랭이 할머니야

우리 친할머니가 굉장히 무서웠어. 그래서 친할머니 방에는 들어가지려고 하지 않았어. 문 열고 인사만 하는 정도였지. 우리 할머니 별명이 호랭이 할머니야. 할머니가 뒷집지구 집에서 천천히 내려오시면 동네 분들이 옆으로 물러서서 고개 숙일 정도였어. 그리고 동네에

큰일이 생기면 그게 무슨 일이든 간에 할머니가 가서 그걸 다 감독을 하셨어요. 우리 언니 이름이 명잔데 “명자네 할머니! 이것 좀 봐주세요.”하고 다 불러.

할머니가 재주가 많으셔서 요리뿐만 아니라 누가 돌아가시면 옷 지으러 가셨어. 그 수의(壽衣) 지으러 꼭 가시더라고. 동네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에 할머니가 다 참석을 하신 거지. 그래서 제가 할머니를 조금 닮은 거 같아요. 생긴 것도 우리 할머니 닮았어요. 할머니가 나같이 조그맣고 통통하세요. 할아버지는 정릉 분이셨는데 할머니가 정릉 분이었는지는 모르겠어요.

한 번은 이런 일도 있었어. 우리 고모가 은행장인 고모부를 따라 만주도 가고 여러 지역에 가셨나 봐. 그때 고모가 서울사람이라고 처음 파마를 했어. 고모가 파마하고 나서는 엄마가 막내 올켄데 우리 엄마한테도 하라고 그랬나 봐. 고모가 직접 미장원에 데리고 가서 파마를 시켜줬는데, 할머니가 와서 보시더니 노발대발하셨대. 머리 이리 내 놓으라고 고래고래 소리 지르시고. 그래서 우리 엄마가 아주 혼났대. 자기 딸도 파마했는데 아무 소리 안 하시고 왜 우리 엄마한테만 혼 내셨는지 몰라.

친할머니 방에 가면 항상 먹을 게 너무 많아. 아주 어렸을 때 고모가 딱 한 분인데, 고모부가 동대문 은행장을 하셨어요. 그래서 어디 갔다 오시면 그때 미제 사탕을 사 오셨어요. 굴 쪽같이 생긴 미제 사탕이 많이 있는데 할머니는 그걸 안 주세요. 할머니는 바나나도 많았어. 어렸을 때는 바나나가 아주 귀했거든. 그런 먹을 게 항상 많았는데도 친할머니는 절대 안 주세요. 근데 미아리에 사시던 우리 외할

머니는 뭘 사다 드리면 다 나눠 주셔. “내가 이거 먹고 살찌느니, 니들이 먹고 살찌는 걸 보는 게 나는 더 좋다”고 하시면서 다 나눠주세요. 근데 친할머니는 그게 없어요. 안 주셨어.

살면서 슬픈 일도 많았겠지만, 외할머니 돌아가셨을 때가 가장 슬펐어요. 외할머니 같은 사람은 절대 안 돌아가시는 줄 알았어요. 인정이 많으시고 하니까 그런 생각을 했지. 노환으로 돌아가셨는데도 그랬어.

송덕초등학교 18회 졸업

저는 송덕초등학교 18회로 졸업했어요.(18회는 1966년) 중고등학교도 다 서울에서 나왔어요. 근데 전 대학을 못 갔어요. 요리 배우느라 1년 정도 대학에서 공부했는데, 거긴 대학이라고 할 수 없어요. 말만 대학이지 그냥 기술 배우는 데야. 거기서 1년 동안 요리만 배웠어요.

내가 학교 다닐 때, 송덕초등학교는 나무로 된 교실이 많았어요. 앞쪽 중심에 돌로 된 큰 건물이 직사각형으로 하나 있어서 그 안에 교실이 많이 있었고, 그 옆으로는 다 나무로 된 교실이었어요. 우리 어렸을 때는 석탄을 땀지. 당번들이 바게쓰(バケツ, 양동이를 가리키는 일본말) 가지고 가면 아저씨들이 석탄을 담아 줘. 그걸 조개탄이라고 해서 땀어. 점심시간에는 도시락을 난로 위에다 올려놓으면 밑에 있는 건 타고 위에 있는 건 차가워. 그럼 중간에 바꿔주고, 그렇게

많이 했어.

어려서 학교 갈 땐 너무 추웠어요. 아마도 옷 입은 게 부실해서 그랬나 봐요. 발은 또 왜 그렇게 시렸는지, 발이 엄청 시렸어. 그 당시에는 교실에 신발을 못 신고 들어가게 했거든요. 그래서 엄마가 네모난 모양으로 목화솜을 가지고 발 넣는 걸 만들어주셨어. 방석같이 만들어서 위를 덮고 발 집어넣을 수 있게. 꼭 그걸 들고 다녔어. 깔고 앉는 방석도 따뜻하게 만들고. 그때는 애들이 그런 걸 많이 갖고 다녔어. 학교 다닐 때 들고 다니는 보따리가 컸지.

내가 학교 다닐 땐 한 학년에 12반까지 있었어요. 한 반에는 보통 68명 정도 있었고. 과목은 국어, 산수, 사회, 자연, 도덕, 음악, 미술 그렇게 배웠어요. 옛날에는 한 선생님이 다 가르쳤잖아요. 지금도 초등학교는 그렇죠? 체육 시간은 전체가 다 같이 한 거 같아. “체육 한다” 그러면 전교생이 다 운동장에 나와서 앞에 있는 체육 선생님 따라 했어요.

우리 집 마당에 꽃이 참 많았어요. 그래서 환경 미화한다고 하면 학교에 꽃을 꺾어 갔어요. 대청소하고 난 뒤 꽃꽂이하고 그랬거든요. 특이한 꽃은 없고, 지금 기억이 나는 게 과꽃이나 백일홍 그런 거지. 빨간 장미꽃도 있긴 있었지. 근데 우리 아버지가 장미꽃은 잘 안 꺾어 주셨어요. 파리 나무도 있었는데, 가을이 되면 그걸 밑을 베서 이파리를 다 떼 내면 빨간 파리만 남아. 그걸 한 묶음씩 나눠주셨어. 지금은 그게 약이 된다는데 옛날엔 그런지도 몰랐어. 그냥 예쁘니까 가지고 간 거지.

소풍은 정릉으로 많이 갔어요. 청수장으로도 많이 갔어요. 기억에

남는 건 5학년 때 봄소풍을 화계사(華溪寺)³를 간 것 같아. 왜냐면 그때 갔을 때 비는 왜 그렇게 왔는지 몰라. 비가 너무 와서 어디 의지할 데가 없었어. 개나리 나무 밑에 앉아서 비 맞으며, 도시락을 먹었던 기억이 나.



현 승덕초등학교 전경(성북구청)



1985년 승덕초등학교 입학식(2019년 성북구 옛사진 공모전을 통해 수집)



어린 시절부터 친한 친구들

3 서울특별시 강북구 수유동에 있는 절이다. 봉은사(奉恩寺)에 소속된 작은 절로, 조선 광해군 10년(1618)에 도월 대사(道月大寺)가 중건하였으나, 지금 남아 있는 것은 고종 3년(1866)에 용선(龍船) 대사가 중수한 것이다.(출처: 한국민족문화대백과)

아버지가 썰매 만들어 주셔가지고 썰매 많이 탔지

개천에 물이 얼면 스케이트들을 탔어. 그때는 정릉에서 스케이트를 우리 남동생이 제일 처음 샀어. 스케이트를 개천에서 타는데 사람들이 다 구경하고. 근데 우리도 그걸 신어보고 탈라 했는데 그때 너무 겁이 많아 가지고 못 타겠더라고. 개천이 스케이트장같이 얼음이 평평하지도 않잖아요. 남동생은 남자니까 어느 정도 타고 다니는 데 나는 못 타겠더라고. 그때 일어나면 넘어지고, 일어나면 넘어지고. 스케이트 타기 전에는 썰매를 많이 탔지. 아버지가 썰매 만들어 주셔 가지고 탔지.

남이 하는 건 빠지지 않고 다 했어

1950-60년대에 학교가 많이 늘었어요. 옛날에는 돈암초등학교, 정릉 송덕초등학교, 미아리에는 송인초등학교 있었는데, 송덕에서 분리된 게 처음에 청덕이 생기고 다음엔 정릉초등학교가 생겼어. 내가 알기론 학교가 한 네다섯 개가 생긴 거 같아요. 내가 다닐 때 분리된 건 청덕 하나야.(1967년 9월 6일 송덕국민학교에서 27학급을 받아 분리) 나머지는 졸업하고 나서고.

저는 국민학교 나왔어요. 지금처럼 초등학교 아니고요. 그 시절에 친구들과하고 고무줄하고 핀 따먹기 놀이를 많이 했어. 돌맹이 던져서

하는 사방치기⁴도 하고, 술래잡기도 하고. 그리고 우리집 근처에 고아원이 있었는데, 그곳에 계단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그 계단에서 매일 가위바위보 해서 이긴 사람이 한 계단씩 올라가고 그랬어. 저는 성격이 조용하면서 활발했어요. 사람들이 굉장히 차분하다고 말했는데, 그래도 남이 하는 건 다 했어요. 뭐를 해도 빠지지 않고 다 하고 다녔어요.

또 승덕초등학교 3학년 다닐 때 합창단을 했어요. 호산나합창단⁵을 했는데, 김창선 선생님하고 또 한분이 계셨어요. 다른 한분은 이름이 기억이 안나요. 이분은 머리가 베토벤 같으셨어. 그래서 베토벤 선생님이라고 그랬지. 어느 날 불광동 소년원에 위문을 갔어요. 우리가 몇 곡을 불렀는데, 애들이 막 울더라고. 그게 제일 기억에 많이 남아서 지금도 안 잊어버려. 그게 5학년 때 같아. 우리가 강당에서 노래를 불렀지. 거기에 애들이 많이 와서 앉아 있었어요. 처음에는 안 울었는데, 몇 곡 부르다보니깐 애들이 여기저기서 울기 시작하더라고. 지금 제일 기억이 남는 노래는 ‘들장미’이고. 나머지 노래는 다 잊어버렸어. 근데 들장미는 안 잊어버렸어. 외국어로 노래를 불렀는데.

4 사방치기는 ‘땅따먹기’라는 이름으로도 많이 알려져 있는데 최근의 아이들에게도 전해지고 있는 몇 안 되는 놀이 중 하나이다. 지방에 따라서는 애기날기·옛차·새발뛰기·일이삼사 등의 이름으로도 부른다.(출처: 한국민속예술사전)

5 1960년대 초 호산나합창단의 활동 내용이 기사로 확인된다. 1962년 1월 합창단은 지난 크리스마스 때 미8군의 특별초청을 받아 합창 무용 등 여러 가지 연주를 하였다. 또한 미8군대 미국인 학교에서 연주하였는데, “6백 여 명의 남녀 학생들은 합창 독창 한국고전 무용 등 꼬마들의 재주에 감탄하며 즐거워하였다”는 기사가 있다.(출처: 조선일보, 1962.1.20.)



송덕초등학교(성북구청, 1990)

불량식품인 줄 모르고 먹었지

그때는 학교를 다 걸어 다녔지. 우리는 버스를 타면 두 정거장 정도 니까 걸어 다닐 만했어. 근데 청수장⁶쪽에서 오는 친구들은 멀었지. 그 애들은 걸어 다니기 힘들었을 거야. 학교 다닐 때 군것질 하는 거 좋아하잖아요? 저도 군것질 많이 했어요. 어릴 때 봄이 되면 해삼이랑 멧게를 좋아해서 사 먹었어요. 해삼을 팔면서 사과도 조금 놓고 옷핀으로 꽂아 놓은 뒤 해삼을 잘라주면 그걸 사 먹었어. 근데 그게 굉장히 비쌌어요. 그래서 자주는 못 사 먹어. 어찌다 한 번 사 먹지.

여름이 되면 아이스크림을 파는데, 계란 아이스크림이었어. 계란을 가지고 양은으로 똥그랗게 두 개를 만들어서 겹쳐서 고무줄로 묶

6 일제강점기부터 지금의 자리에 있었고, 과거 청수장 호텔이었던 건물이다. 지금은 북한산 국립공원 탐방안내소로 이용되고 있다.

으면 거기다 물감 탄 걸 넣어서 통에다 담아. 그리고 우리 밑에 집 할머니가 손으로 흔들어. 그 안에 얼음도 들었겠지? 얼음하고 소금을 넣고 한참 굴리면 그게 얼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계란 아이스케끼라고 하구 사 먹었어. 아니면 친구 오빠가 통에 지구 다니는 아이스케끼 장사를 했는데 그걸 사 먹기도 했고.

우리 어렸을 땐 주스라고 해서 비닐을 세모로 만들어 가지고 물감 넣은 걸 빨아 먹었지. 그게 주스래. 지금 생각하면 완전 불량식품이지. 근데 그걸 주스라고 진짜 사 먹었어요. 색소를 넣은거야. 고무로 세모 모양을 만들어 구멍 뚫어서 그걸 빨아 먹고 다니고 그랬어. 또 얼음을 갈아서 틀에다 찍으면 하트 모양도 되고 그래. 거기다가 할머니가 물감을 짹짹 뿌려 줘. 빨강 물감, 파란 물감. 그러면 얼음을 먹기보단 물감을 짹짹 빨아먹으면 달콤하니까 자꾸 빨아 먹고 그랬어. 어렸을 땐 그게 불량식품인 줄도 모르고 맛있다고 먹었어.

가을운동회의 추억

우리는 가을운동회가 있었어. 가을운동회라면 엄마가 도시락 싸오시지. 같이 운동회 했어. 엄마 손잡고 뛸도 뛰고, 친구들끼리도 뛰고, 엄마도 함께 뛰고. 그런 거 많이 한 것 같아요. 오재미⁷ 던지기도 하고. 줄다리기도 했어요. 지금이랑 비슷할 거예요. 김밥도 썼는데, 우리 어렸을 때는 계란을 꼭 삶았어. 가을에는 밤 꼭 삶고. 예전에는 닭

7 오재미는 오자미라고도 하는데, 일제 강점기에 운동회 등이 실시되면서 들어온 일본 놀이 문화의 하나이다. 그러나 우리에게 수용된 뒤 거의 전통적인 민속놀이가 되어 지금은 운동회 때에 들어가는 프로그램의 하나이다.(출처: 향토문화전대전)

같은 거, 튀긴 거 없었어요. 거의 60년 전이니깐. 닭 같은 건 싸가지고 다니지 않았지. 과자는 많이 싸가지고 다녔지.

옛날 과자는 센베이 과자(일본에서 온 건과자[乾菓子]의 하나) 많이 샀지. 센베이 과자랑 강정. 센베이는 부채모양도 있고, 동그란 것도 있었어. 그리고 오꼬시(일본어 오꼬시(おこし[糀糍]))에서 유래한 말로 추정)라고 하는 것도 있어. 그 당시에는 일본말이 많이 남아있었어요. 오꼬시는 쌀 튀겨서 땅콩하고 섞은 다음에 눌러서 자른 건데, 튀밥이라고도 했어요. 그런 과자 많이 사가지고 다녔지.

지금은 굴이 흔하지만, 우리 어렸을 때는 과일도 없었어. 그저 사과, 배, 감, 포도 그 정도지. 우리 어렸을 때 오렌지, 바나나는 먹기 귀했어.

지금도 보고 싶은 허옥순 선생님

지금까지도 기억에 남은 선생님이 있어요. 초등학교 1학년 때 담임이셨던 허옥순 선생님. 그 선생님은 이상하게 지금도 보고 싶어요. 얼굴이 굉장히 예쁘시고 피부도 하얗고 그러셨어. 선생님이 아직도 기억이 나. 선생님 중에 제일 좋은 선생님 찾아라 그러면 그 선생님이 생각나요. 초등학교 1학년 때 선생님이시니까 지금은 아마 돌아가셨겠지. 옆 반 선생님들은 막 소리 지르고 무서웠는데, 선생님은 안 그러셨어요. 굉장히 얌전하시고 한 사람 한 사람을 다독거리 주셨어요. 허옥순 선생님. 지금까지 이름도 안 잊어버리잖아.

어렸을 때 군인이 되고 싶었어요

나는 어렸을 때 키가 좀 컸으면 군인이 되고 싶었어요. 그런데 내가 키가 작잖아. 그래서 포기했었지. 그때 왜 그렇게 여군이 되고 싶었는지 몰라. 군인이 되고 싶었어. 군인이 아니면 선생님이 되고 싶었어요. 더 하고 싶었던 건 군인인 거 같아. 그래서 고등학교 때 군인이 될까 하는 생각도 들었는데 내가 그걸 알아보니깐 키가 커트라인에 간당간당해서 안 돼. 그래서 못 갔어요.

이북으로 끌려가다가 우리 아버지하고 다섯 분이 탈출

6·25전쟁 때 정릉에는 크게 피해 본 건 없었던 거 같아요. 정릉에서도 피난을 가라고 해서 대부분이 산속으로 갔나 봐요. 엄마는 친정 식구를 따라서 안성으로 가셨대요. 안성에 가셨다가 평택까지 갔는데, 우리 언니가 그 당시 나이가 다섯 살인데 거기까지 울지도 않고 걸어서 쫓아갔대요. “내가 전쟁 때 너무 많이 걸어서 키가 안 자랐다.”라고 지금도 언니가 그 얘기를 하세요.

피난 갔다가 다시 돌아왔는데 정릉 2동 유치원이 있던 곳에 동사무소가 있었는데 동네 남자들은 다 모이라고 그러더라고. 청수냉면 사장님은 집에 계시고, 어떤 분은 숨고 안 나가셨대. 아버지는 나오라니까 거길 나가셨나 봐요. 근데 모이는 대로 그 길로 이북으로 다 끌고 가셨대요. 이북으로 끌려가다가 아버지하고 다섯 분이 탈출했는

데, 오시다가 한 분씩 돌아가시더니 세 분이 돌아가시더라. 아버지하고 또 한 분만 살아남으셨대요. 어느 정도 오다 보니 어떤 할머니가 혼자 지내시더라. 근데 주먹밥을 만들어주셔서 그걸 싸 갖고 오면서 겨우 연명하면서 사셨대.

어디쯤 오다가 이번엔 미군들한테 잡혔대요. 영어도 잘 못 하잖아요. 그래도 나는 남쪽 사람이라는 의사표시를 하셨더니 너희들이 “돼지를 잡을 줄 아냐” 그러더라. 생전 돼지를 안 잡아 보셨는데도 잡을 수 있다고 하셨대. 거기 잡혀서 몇 날 며칠을 계속 돼지를 잡았대요. 고기파티 하는 모습도 보고. 물론 거기서도 어떻게 해서 살아오셨어요. 어려서부터 밥상에 앉으시면 매일 그 얘기를 하세요. 얼른 통일이 되어야 그 할머니한테 가서 보답하는데, 통일이 안 되니까 안타깝다고 하세요.

이북으로 끌려가는 길에도 살아오셨는데, 또 잡혀가셨대요. 이번엔 거제도 수용소로 가셨대. 가보니 수용소에 손씨가 밥 나눠주는 걸 담당하고 있더라. 그래서 밥을 바깥으로 한가득 주셨대. 그 많은 밥을, 둘이서 한 바깥을 퍼서 잡셨대요. 몇 날 며칠을 굶다 잡혀갔으니까 처음에 둘이서 다 드신 거지. 거기서도 살아남기 위해서 똥 푸는 일을 하셨대요. 그거 하면 바깥 구경도 할 수 있고. 그 손씨 되시는 분이 하라고 해서 했대요. 수용소에서 두 분이 똥을 퍼서 바다에다 버리셨대요.

거기서 북으로 가고 싶은 사람, 남으로 가고 싶은 사람이 갈렸나 봐요. 북으로 갈 사람은 북으로 가고, 우리 아버지는 고향으로 오셨다고 해요. 아버지가 식탁에 앉으시면 옛날 얘기를 잘 해주셨어요. 정

릉에는 직접 피해를 본 건 많지 않았다고. 내가 어렸을 땐 큰 건물도 없었고, 거진 초가집이어서 기와집은 몇 채 안 되었어요.

연애도 해보지 못하고 결혼했거든

결혼은 1976년 10월, 그러니깐 스물네 살 때 연애결혼을 했어요. 남편은 스물다섯이었고. 연애도 해보지 못하고 결혼했거든. 제가 그때 명동에서 양품점 할 때요. 제가 명동에서 일하니까 친구들이 다 거기서 와요. 하루도 안 오는 날이 없어. 제가 장사를 해서 친구들을 다 먹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하루는 이 친구 대접해주고 다음 날엔 저 친구 대접해주는데 일이 끝나도 집에 일찍 못 들어왔어요. 다음 날 새벽에 나가서 물건도 떼어야 해서 매일 힘든데.

남편을 친구 소개로 만났는데 그때는 통행금지가 있었어요. 그날이 첫 만남인데 명동에서 정릉 우리 집으로 들어와야 하는데, 저를 데려다주겠다고 했어요. 그 당시 저희 집은 딸이 넷이나 있었어요. 딸이 많다 보니 아버지가 좀 무섭게 하셨어요. 그래서 데려다준다고 그랬을 때 싫다고 했어요. 동네 사람들이 보는 게 싫고 아버지가 알면 혼난다고 하니까 정릉까지는 안 가겠다고 해요. 택시를 타고 가다가 정릉 못 가서 자기는 내리겠다고. 그때 남편 집은 이화동이고 나는 정릉이니깐 택시가 서울대학교가 있는 연건동에서부터 막 달렸어요. 그렇게 달리다가 택시기리 정면충돌하는 사고가 났어요. 그래서 제가 탄 택시기사가 죽었어요. 그리고 저하고 우리애기 아빠는 이

대 부속병원에 실려 갔는데, 저는 그다음 날 정신을 차렸어요. 그런데 그때 병원에서 우리를 신혼부부라 그랬대요. 우리를 2인실 한 방에다가 입원시켜 주었어요. 그러니 양쪽에서 식구들이 다 와서 보고, 결혼을 안 할 수가 없는 형편이었어요. 진짜 연애도 못 해봤어요. 연애하려고 하는 도중에 교통사고가 난 거예요. 신혼여행이 문제가 아니고 연애도 못 해보고 시집을 가서 그때가 너무 원망스러웠어요. 그래도 지금은 다 용서가 됐어요.

저는 살아오면서 그렇게 힘들었던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제가 정릉 집에서 태어나서 그 집에서 자랐으니까 부러운 건 많았어요. 엄마 아버지가 다 서울 토박이니까 기차를 못 타보는 거. 추석이나 설에 친구들이 멀리 간다고 그러는데 난 절대 갈 일이 없고, 몇 발자국만 가면 큰 집이니까 그런 게 너무나 부러웠어요. 그리고 우리 딸이 태어났을 때가 제일 기뻐요. 아이는 딸 하나 있어요.

우리 때는 신혼여행이라곤 온양온천이었어

신혼여행으로 온양온천(溫陽溫泉)은 안갔지만 그전에는 신혼여행이라고 간곳이 온양온천이었어. 경주는 안갔어. 경주는 고등학교 때 수학여행으로 가봤고, 온양온천을 많이 갔지. 우리언니는 아주 부잣집으로 시집을 갔기 때문에 신혼여행을 제주도로 갔어. 제주도 가서 우리언니는 열흘을 있다가 왔어. 진짜 거기 열흘 있다가 온 사람은 아마 없을 거예요.

저는 강원도 쪽을 좋아해서 설악산을 많이 갔어요. 설악산 가면 속초 바닷가랑 양양 쪽으로도 많이 갔어요. 여기는 놀러 자주 갔고, 나중에는 많이 돌아다녔죠.

결혼하고 다시 들어와서 정릉에 지금까지 살았어요

지금 사는 집에서 태어났고, 어머니랑 아버지가 결혼하신 집이에요. 집만 다시 지었어요. 결혼하고 이화동 시집으로 나갔지. 근데 애 낳고는 일을 해야 되는데, 애를 우리엄마가 왔다 갔다 하면서 봐주기가 힘들었어요. 그래서 다시 정릉으로 들어갔어요. 애도 보고, 어머니, 아버지를 모시러 다시 들어간 거예요. 한 일년 정도 나가서 살았던 거 같아요. 정확히는 1977년에 다시 정릉으로 이사를 한 거죠.

제가 돈을 벌었기 때문에 딸을 엄마한테 맡겼어요. 어머니가 아이를 봐 주시면서 집에 방이 여유가 있으니까 들어와서 살라고 하셨어요. 그때 들어와서 지금까지 살았어요. 그러니 친정어머니하고 오래 같이 산거죠. 남의 집은 안 살아봤어.



중학교 시절, 가운데가 손명옥 님



중학교 졸업식 때 다른 학교 친구들과 함께



솔밭에서 중학교 친구들과 함께



고등학교 1학년 때



고등학교 2학년 때

12

손가정 마을



손가정 마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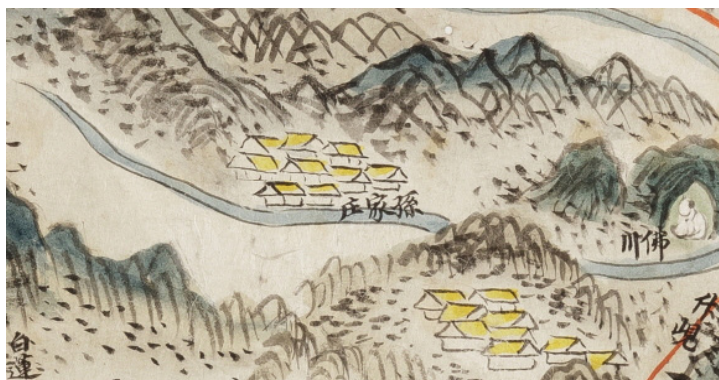
손가정(孫哥亭) 마을은 정릉3동 정릉시장 일대에 밀양 손씨들이 많이 살았고, 예전에 정자가 있던 곳이라 해서 붙여진 이름이다. 조선시대 기록에는 손씨들이 사는 마을이라는 뜻에서 손가장(孫家莊, 孫家庄)으로도 표현되어 있다.

밀양 손씨 32세손인 손만기(孫萬琦) 형제가 터를 잡은 것이 시작이라고 한다. 현재는 시조 이래 45대부터 50대 정도의 후손들이 약 20가구 거주하고 있으며, 매년 음력 7월 그믐에 손만기의 묘에서 시제를 지낸다. 손가정 마을 사람들은 조선 후기까지 주변의 땅을 일궈 논농사와 밭농사를 지었다. 하지만 일제강점기 때 진행된 토지조사사업으로 땅을 잃은 후에는 손가정과 청수동 골짜기 채석장에서 돌

을 채취하거나, 석재를 다듬는 석공일을 하기도 했다. 정릉천 곳곳의 바위에는 돌을 깎던 흔적과 반야교를 통해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한때 정릉천이 복개되면서 예전의 모습을 많이 상실했지만, 2008년 정릉천 복원 공사를 하면서 복잡했던 정릉상가도 철거되었다. 지금은 과거의 물 맑은 정릉천으로 복원되어 환경 개선이 이루어졌다. 현재 정릉천 근처 커다란 느티나무 옆에는 손가정 터에 대한 유래가 적힌 표지석이 있다.



동국여도(東國輿圖) 도성도(都城圖)(서울대 규장각 소장)



동국여도 도성도 손가정 지역 확대(서울대 규장각 소장)

손가정의 위치⁸



손가정 마을 지도(과거와 현재가 혼재)

손가정 팻말을 지금 위치인 고목나무 밑에다 갖다 뒀는데 거기하곤 상관없어요. 지금 기차순대국 가게에 있는 다리 있잖아? 그 다리 예다 갖다 놓는 게 맞아요. 거기를 중심으로 아래 위로 건너와서 손씨들이 많이 살았거든. 거기가 손가정이에요.

정릉에서 시장으로 들어오잖아요? 그럼 다리가 있고, 다리 가까이

8 19세기 전반에 작성된 동국여도(東國輿圖, 서울대학교 규장각 소장)의 도성도(都城圖), 연용대도(鍊戎臺圖), 도성연용북한합도(都城鍊戎北漢合圖)에는 손가장(孫家庄)이라는 마을 이름을 확인할 수 있다. 특히 도성도에는 정릉천을 중심으로 주거지였음을 표현하기 위해 집 형태를 그려놓았다.

에 기차순대국이 있잖아요. 원래는 옛날 고아원 있던 자리 밑에요. 지금 요기 넘어가면 허름한 판잣집에서 부부가 야채 장사를 하셨어요. 밑에 우리 손씨 집안에 집이 있었는데 그걸 파셨어. 그래서 그분들이 그걸 사가지고 나지막한 옛날 집에서 순댓국을 하시다가 현재 한옥으로 이사 가신 거지. 옛날 집은 지금 해주식당 자리에 있었지요.

순댓국집 주인들은 정릉사람은 아니고 나 어렸을 때 들어왔어. 그래서 그 집 큰아들이 막내 남동생하고 친한 친구야.



손가정터 표지석

우리집의 모습

옛날에는 손가정 마을만 있었고 거의 집이 없었어요. 지금 국민대 학교 있죠? 정릉3동 시장 있는데 거기가 손가정 마을로 이루어졌고, 거기부터 국민대 가는 길까지 집이 별로 없었어요. 다 산이었는데 지금은 다 집이 들어섰잖아요. 근데 옛날 정릉에 내가 아주 어렸을 때는 초가집이 많았어요. 기와집도 있었지만, 초가집이 좀 많은 편이었어요. 지금도 초가집이었던 집이 기와만 얹고 그 틀은 초가집 그대로인 집이 몇 집 있어요. 우리 집은 새로 다시 짓긴 했는데 우리 앞집만 해도 초가지붕을 다 뜯어내고 그 위에 기와를 얹어서 살아요.

우리 아버지는 막내였기 때문에 큰 집에서 분가를 해서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처음엔 초가집이었어요. 이후 집을 다시 지었지. 나중에 어떻게 감당할 수가 없으니까. 짚으로 지붕도 해야 되잖아요. 벧짚도 서울이니까 구하기 힘들고 해서 너도나도 다 기와집으로 다시 지은 것 같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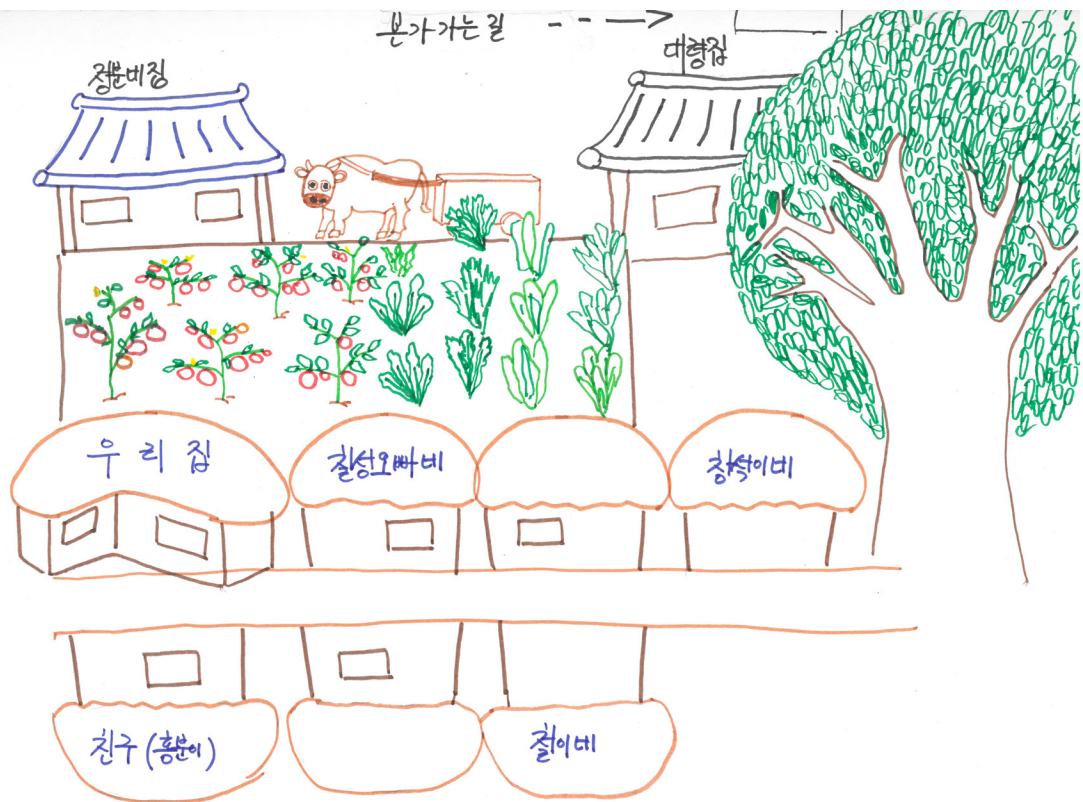
우리 집의 모습은 안방, 마루, 건넌방, 부엌. 안방이 있고 가운데 마루가 있고 여기 방이 또 있고 요쪽에 창고 같은 데가 있었고 부엌 옆으로 방이 하나 있었고. 긴 직사각형 공터도 있었는데, 야채를 심어 먹었어. 여기에 아버지가 시금치도 심고 아욱도 심고 그랬어.

담 밑에다 파리 나무를 쪽 심으셨어. 그래서 가을만 되면 우리 집에 과꽃, 국화꽃이 있어서 애들이 학교에서 꽃가지고 오라고 그러면 우리 집으로 왔어. 옛날에는 그런 꽃밭에 없었잖아요. 꺾어서 요만큼씩 해서 주시고.

여기는 위에 다는 조롱박 있죠? 조롱박 심고, 또 옆으로는 이쪽이
여기 장독, 여기 창고 위에다가 장독대고 밑에 창고같이 했는데, 공
터 옆 오른쪽에는 포도나무도 있었어. 수세미 나무 밑에 아버지가 쇠
사슬 체인 있죠? 그걸로 그네를 매주셨어. 동네 애들도 와서 많이 타
고 놀고 그랬어요.

우리 집은 오른쪽도 길이고, 집의 아래로도 길이야. 담에는 파리 나
무에다가 여기저기 호박도 심고. 옛날에는 우리 집 뒤로는 윤씨 할아
버지네 집이었어. 여기가 다 허허벌판 밭이었어요. 할아버지네 집은
마루 쪽으로 문이 있었고 안방과 부엌 사이로도 문이 있었고 그랬어
요. 여기는 마루 뒤에 문 있는 거 아시죠? 쪽문은 아니고 문이 좀 컸
어. 마루 뒤로도 보면 열무하고 배추 심으면 내가 그걸 뜯어다가 초
등학교 때 김치를 담갔어. 엄마가 하시는 거 보고 김치를 요만한 단
지 같은 거 뒤 곁에 갖다가 숨겨놓고는 음식을 혼자 만드는 걸 그렇
게 잘했어요.

별채가 있는 게 아니고. 여기 안방, 마루, 방을 하나로 묶고, 안방
부엌 하나로 묶어. 창고 따로 있고. 그리고 내방 창문이 있잖아요. 이
제 골목이에요. 골목 쪽으로 마주 보이는 요기가 친구네 집 안방이
야. 그럼 이 친구하고 창문을 열면 둘이서 자기 전에 서로 꼭 창문 열
고 얘기하고 잤어. “잘 자”이렇게 서로 얘기하고. 담벼락은 없고 그
냥 거기가 골목이야. 앞마당에는 지붕은 없고 그냥 흙바닥으로 돼 있
고. 마루 아래 돌이 있었고요



우리 집 건넌방 창문을 열면 친구네 집 안 방이에요.
잘 때도 서로 창문 열고 “야, 잘 자” 그러고 소리 지르고 자고 그랬는데
지금도 제일 친해요.

청와대 안에 돌 일은 다 아버지가 하셨어요

친정아버님은 7남매의 막내로 태어나셨어요. 그리고 손재주가 좋으셨어요. 제가 어려서 봤을 때 옛날에 정릉에 사시던 분들은 할아버지나 아버지, 형님뻘 되시던 분들은 돌 일을 하셨어요. 아버지 윗세대 분들은 돌을 깨는 일을 주로 하셨고. 저희 아버지는 좀 젊으셔서 돌을 쌓는 일을 하셨어요. 지금 원서동 현대사옥 밖에 돌탑 쌓아놓은

거, 그걸 우리 아버지가 하셨어요. 현대(現代)라고 쓰여 있는 표지석 말고, 지나가다 보면 그 안에 오래된 돌탑이 있어요. 관상감(觀象監) 관천대(觀天臺)⁹ 그거예요. 청와대 안에 돌 일은 다 아버지가 하셨어요. 솜씨가 굉장히 좋으셨어요.

저희 손씨네 집안에 ‘현대석재’라고 큰 돌산을 가지고 돌 일을 주관하시는 분이 계셨어요. 같은 손씨니까 먼 친척이지. 아버지의 형님 별 되시는 분인데, 그 공장이 의정부 조금 못 가서 장수원¹⁰이라는 큰길가 옆에 아주 크게 있었어요. 청와대 안에서 하는 돌 일은 다 현대석재에서 했어. 아버지가 돌 일을 하니까 청와대에 같이 들어가고 했지. 현대석재 아주머니가 오셔서 “서방님 있수?”하고 부르세요. 그러면 아버지가 “네.”그래요. 그럼 아주머니가 “내일 어디로 가시래요.”라거나 “몇 월 며칠에 어디에 돌 일이 있는데 시간 되시면 내려오세요.”라고 상의하고 가셨어요. 그러면 아버지가 또 그리로 가시고 그랬던 거 같아.

나중에는 일본에서도 아버지를 모시러 왔었어요. 그런데 아버지가 일본사람이 그 전에 너무 나쁘게 해서 가기 싫다고 안 가시더라고. 일본에 감정이 안 좋았던 거지. 그 현대석재 하시는 분 때문에 정릉 손씨 사람들이 돌 일을 많이 하지 않았나 싶어요. 그런데 그 일도 우리 아버지 대에서 끝난 거 같아.

9 조선 초기 관상감은 경복궁 영추문 안과 북부 광화방 두 곳에 있었는데, 이 중 북부 광화방(서운관)의 관상감이 현재 원서동 현대사옥 자리에 있었다. 15세기 전반에 관상감이 세워질 때 관천대도 함께 축조된 것으로 보인다. 이 관천대는 옛 휘문고등학교 안에 있었다가 그 자리에 1984년 현대사옥이 건설되면서 복원될 때 손명옥님 아버지께서 작업하였다고 한다. 관천대는 소간 의대나 ‘별을 관측하는 대’라는 뜻에서 첨성대라고 불렀다.(출처: 한국민족문화대백과)

10 의정부시 호원동 신한대학교 앞 삼거리 부근에 조선 시대 ‘장수원’이라는 공용여관이 있었기에 붙여진 지명이다. 임꺽정에 대한 기록에 나오는 것으로 보아 16세기에 한양 도성을 드나드는 사람들이 묵어가는 거처였음을 알 수 있다.



1980년 아버지 회갑잔치(왼쪽 두 번째 손명옥)



아버지와 막내남동생 결혼식에서

공청이 회관처럼 크게 있었어요

저희는 밀양 손씨구요. 문중 모임이 있어요. 제가 어렸을 때는 손씨 문중 노인분들이 모이는 방이 있잖아요. 공청이라고 하더라고요. 공청은 옛날에는 마을마다 다 있었어요. 노인네들 모이는 장소로. 정릉 1동부터 미아리까지 서로 다 알아요. 서로 친구하고. 공청은 내가 어렸을 때도 보면 군데군데 있더라고.

우리 마을은 손씨들도 많지만, 동네 분들도 있었어요. 왕씨도 좀 있었어요. 그리고 저희 옆에 오래되신 아버지 친구인 윤씨분이 계셨어요. 다른 분들도 계셨겠지만 그 외의 성은 잘 모르겠어요. 별로 많은 성은 아니었던 거 같아요.

어렸을 때는 돈을 한 달에 한 번씩 조금씩 내요. 그거 모아 가지고 추석이나 설 때는 김, 고기, 북어 등을 사가지고 손씨들끼리 나눠 먹었어요. 다른 성을 가지신 분들도 가입해서 같이 나눠 먹었던 기억이 있어요. 지금 공청 자리에는 카페랑 베트남 국수집이 생겼는데 거기예요. 옛날에 거기 공청이 회관처럼 크게 있었어요. 공청회는 거의 모든 걸 결정했지.



회색 건물이 과거 공청자리이다



과거 공청자리, 3층 상가건물이 세워졌다

옛날에 거기 옆에 백수약국 있고 공청 밑으로 계단이 있어서 개천으로 내려갈 수 있었어요. 백수 약국은 공청회가 없어지고 나서 생긴 거야. 동네에서 제일 오래된 약국은 경애약국이지. 그건 아주 어렸을 때부터 있었어. 그 약국과 관련된 재미난 일이 있었어. 우리엄마가 빵을 잘해주셨다고 그랬죠? 한번은 그 약국에 식소다(食soda)를 사러 갔었어. 사다놓고 아직 빵은 안했어. 그랬는데, 그 약사분이 혈레벌떡 뛰어오셨어요. 그 약사분 하고는 가족 같았어. 다 한동네니깐. 또 그 집 아들하고 나랑 동갑이고 하니깐. 엄마가 나오셔서, “웬일이냐고?”그러니깐 약을 잘못 주셨대, 지사제를 주신거야. 그래서 바뀌간 기억이 있어요. 엄마가 방금 빵을 했으면 큰일 날 뻔했어요. 우리엄마도 나중에 가끔 이야기를 하시더라고. 지금 있는 수보약국에 팔고 가신 것 같아. 그 자리 그대로야.



현 수보약국 모습(과거 경애약국 터)

손가정 노인정



손가정 노인정(©생활건축연구소, 2009)

공청 땅을 팔아가지고 손가정 노인정¹¹을 지었어요. 순전히 노인네들이 자기네 힘으로 지었어요. 근데 구청에서 배상하고 없었지. 지금 노인정이 없어. 남의 아파트 노인정에 다들 흠어져 있어. 정릉의 손씨들이 개천에서 돌을 주워서 집을 같이 지었어요. 물 쪽에다 기둥을 세워서 손가정 노인정을 지었어. 근데 꼭 손가정 어르신들만 오신 건 아니고 오래 사시던 토박이 어르신들도 다 모였었어요. 그 위치는 우리 집에서 조금 올라가면 고목이 보여요. 그 위를 보면 지금 차를 많이 세우는 공터가 있어요. 그 차를 많이 세우는 공터가 청수냉면 사장 땅인데 나라에다 기증을 하셨어요. 그래서 그 위를 보면 또 나무

11 지금은 사라진 손가정 노인정 건물은 솔샘로18길 72건물과 정릉천 사이에 위치했었다. 철거는 필요하지만 무허가와 허가를 기준으로 철거를 결정하는 것은 무리한 방법이다. 생활사라는 작은 역사도 신중하게 다루는 것이 필요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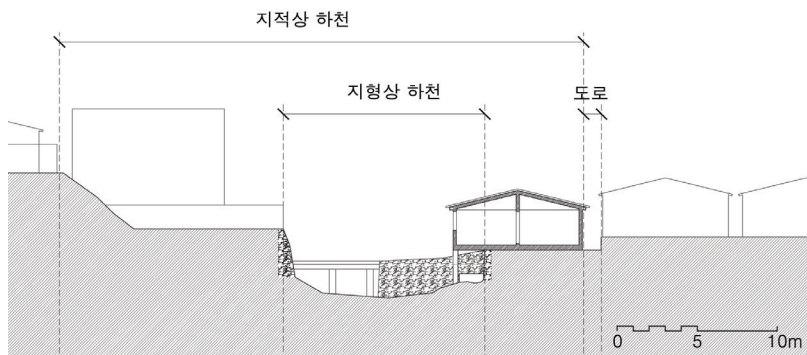
심어놓은 데 있어요.

그 터예요. 그 터로만 보면 좁지만, 개천으로 넓혀서 기둥을 세운 뒤 공간을 만들어 노인정을 지었었어요. 제방에서 하천 쪽으로 빠죽이 나와 교각 위에 지어졌는데, ‘손가정 노인정’ 문패가 걸려있었고 두 개의 건물로 이루어져 있었어.

건물로 들어가면 지금도 느티나무가 있어요. 문을 열고 들어가면 느티나무가 있고, 길게 마루와 큰 방이 하나 있었어요. 그러니까 방, 마루, 부엌하고. 그렇게 3칸만 있었고 그 뒤쪽에 방이 있었는데 그 방은 세를 줘서 그 셋돈을 받아서 쓰셨던 거 같아요. 그게 없어진 지 5년은 안 넘었을 거 같아요. 손가정의 노인정 건물은 하천공유지에 지어진 무허가 건물이었어. 하천의 복원과 정비 사업이 진행되면서 무허가 건물에 대한 철거가 이루어져 노인정 건물도 사라지고 말았지.



손가정 노인정(©생활건축연구소, 2009)
큰 나무 아래 축대 위에 세워진 건물이 손가정 노인정 건물이다.



손가정 노인정과 정릉천 지역 실측단면도(©생활건축연구소)

손가정에서 산신제를 지냈어요

공청에서는 주로 무엇을 했냐면 노인네들 모이는 장소지만 손가정에서 산신제를 지냈어요. 지금은 산제가 여기저기 다른 동네도 많이 생겼더라고. 근데 옛날에는 그렇게 지내는 사람이 손가정 밖에 없었어. 음력 10월 1일이면 제관들이랑 우리 아버지하고 두루마기 입고 가셨어. 오래 나이 연세 드신 분들은 새벽에 안 나오시지만, 아버지는 그 세대에서 제일 막내였어요. 우리 아버지가 막내니까 아버지 친구분들하고 나가셔서 길에다가 책상 하나 놓고 불을 옆에다 지퍼 놓고 준비를 하셨어요. 새벽에 나오셔서 돈을 걸어. 옛날에는 한 집에 3,000원씩 받다가 나중에는 5,000원. 그러면 멀리 외지로 이사 가신 분들도 잊지 않고 그날은 그 돈을 내려 오세요. 돈을 받아서 떡을 하는데 떡이 엄청 두꺼워요. 돈을 낸 사람들에게는 산신제가 끝나고 노

인회관에서 나눠주는 떡을 받아갈 수 있는 떡표를 줘요. 일종의 영수증과 같아서, 떡표가 있어야 떡을 받아갈 수 있어.

또 뭐를 하나면 소머리 고기, 밤도 최고 좋은 거, 대추도 최고 좋은 거, 이런 거 사가지고. 떡을 해서 산에 올라가 산신제를 지냈어요. 저희 큰집 위쪽으로 올라가면 산 밑에 있어요. 국민대 후문의 길을 따라 올라가 있는 마을버스 종점에서 산으로 조금 걸어 올라가면 있어요. 약간의 평지가 있고 그 뒤에 부채 모양의 바위가 있어. 그래서 거기서 산신제를 지내고 내려오시면, 저녁에 돈 내신 분들이 오세요. 그리고 돈 낼 때 받은 표를 주고 떡을 가져가지. 떡, 밤, 대추, 머리 고기, 또 산적…. 많지는 않지만, 다 잘라서 골고루 나눠 먹고, 나머지 소머리 고기로 국을 끓여 가지고, 일하신 분들 같이 먹고. 제가 그때 어렵지만 소머리 국이 진짜 맛있었어요.

10월에는 산소에 떡이랑 음식 다 챙겨가서, 손씨가 다 모여요. 거기서 제사를 또 지내고. 어려서 따라 다닌 기억이 많이 나요. 크면서 안 갔지만 어려서는 열심히 따라다녔어요. 저희 아버지도 지금 거기 가세요.

전을 부쳐도 대나무로 끼워서 녹두전을 부쳤어요

옛날에는 제사를 지극정성으로 했잖아요. 지금은 음식도 대충하지만. 옛날에는 뼈대 있는 집이라고 해서 전을 부쳐도 대나무로 고기, 파, 고사리, 도라지 끼워서 녹두전을 부쳤어요. 그런데 요즘은 그런

거 하는 집 없잖아. 그래서 우리 엄마도 아버지가 먼저 돌아가셨는데
녹두전 하는 데 꼭 그렇게 하라고 그러시더라고. 그래서 나도 지금
그렇게 하구 있어요.

우리가 먹을 건 녹두전도 조그맣게 지지만 제사상에 놓는 거는
크게 해 가지고 네 군데 잘라. 그리고 옛날에는 제사 지내기 전에 우
리는 큰집에 가서 제사를 지내면, 어른들이 음식 하면, 우리 그거 절
대 먹는 건지 몰랐어. 제사가 끝나야지만 먹는 건지 알았어요. 그런
데 지금은 안 그러잖아. 우리 먼저 먹어 봐야 된다고, 간 봐야 된다고
하고 그러잖아. 옛날에는 그런 거 없어. 그리고 큰집 가면 여자들이
음식 하면서 뭐 찹찹대고 먹는 건 없었어.

옛날에는 대나무를 다 잘라 가지고 가늘게 해. 젓가락보다 더 가늘
게 해가지고 고기도 끼우고, 파도 끼우고, 고사리, 도라지도 끼우지.
다음에 녹두를 한 번 놓고, 그걸 놓은 위에 녹두를 한 번 놓고 굽는
거예요. 저도 그거 많이 했었는데 녹두보다는 밀가루를 묻힌 다음에
계란에 담갔다가 부쳤어요. 제사는 집안이 편하라고 조상모시는 거
지. 편 찌고, 떡, 강정 드시고, 가실 때는 짚어지고 가시라고 그랬대
요.

창동에다가 선산을 사 놓고

저희는 마을 근처에는 묘를 만들지 않았어요. 마을만 있었고 마을
지나서 논밭이 있었고 낮은 산이 있으니까 창동에 선산을 사 놓고

조상님들을 거기다 모셨죠. 이후에 창동에 아파트가 많이 들어오니
까, 그 땅을 팔고, 지금 백석 가는데, 지금은 의정부 조금 지나서 방
성리라고 있어요. 그 방성리에 한 3,000평 정도 조상묘지가 있어요.
지금 거기에 다 계셔. 큰아버지, 아버지 거기 계셔요.

그러니까 한 집안이야

지금도 다 가깝게 지내요. 그러니까 한 집안이야. 누가 돌아가셨다
면 다 같이 가서 바느질하고 음식같이 하고 그 전에 보면 나 초등학
교 때도 누구네 결혼식이라 그럼 우리 엄마가 국수를 엄청 많이 사
다 주더라고. 이렇게 손씨끼리는 단합이 참 잘 된 거 같아. 누구네 누
가 아프다 그러면 다 같이 가서 들여다보고 같이 병원에도 모시고
가고 그랬고. 다 형님이야. 형님, 아우님, 서방님 이렇게 부르는 거
같아. 아주머니들이 우리 아버지 부르라고 그러면 “서방님 계슈”그
랬어.

우리 아버지가 손재주가 좋으셨어요. 동네 전기만 망가지면 다 고
쳐줬어. 손재주가 좋으셨던 거 같아. 뭐든 갈아 끼우고 전선 만들어
주고 그러는 건 다 하셨어요. 옛날에는 돈을 받고 하고 그런 게 아니
고 그냥 가서 해 주셨던 거 같아. 우리 할머니도 마을에서 뭐 말고.
특이하게 뭐 맡았다고 말할 순 없는데 우리 할머니는 어른이니까, 동
네 사람들이 뭐를 하면 “아주머니 뭐는 어떻게 할까요?”이렇게 물어
보러 와요. 그럼 어떻게 하라고 하고 그랬어. 우리 할머니도 손재주

가 좋으시니까 누가 돌아가시면 수의도 지으시고, 음식하면 음식도
잘하셨고, 큰할머니로서 대접을 받고 사람들이 와서 많이 배우고 가
기도 하고 그랬던 거 같아.

13

정릉의 옛 풍경



여름만 되면 정릉천에서 목욕하고 빨래하고

제가 사는 곳을 손가정 마을이라고 해요. 손가정 마을 바로 앞에 정릉천이 있는데 정릉천이 옛날에는 지금보다 굉장히 폭이 더 넓었어요. 지금 보면, 정릉천 옆으로 길이 있는데 그 길이 없었어. 집이 그냥 낭떠러지였어요. 근데 길을 만든 거지. 그 길만큼 더 넓었고, 물도 굉장히 많았는데 지금은 물의 양이 내가 생각하기에 옛날 물의 한 15분의 1이나 20분의 1 정도 밖에 안 되는 거 같아. 옛날엔 물이 굉장히 많았어요. 여름만 되면 무조건 거기 가서 놀았어요. 우리들은 학교 갔다 오면 자기 신었던 운동화 가져가서 놀았어. 친구들끼리 하루 종일 물가에서 빨래하고, 놀고 그러다 왔어. 중학교 때까지는 거기서 교복도 빨고 그랬어.

그리고 아주 어렸을 때는 돈암동이나 다른 가까운 곳에서 빨래를 하러 와요. 솔을 갖고 와서 개천에서 불을 때서 빨래를 삶고. 바윗돌에 널어서 가져가고 많이 그랬어요. 저녁에는 정릉 사람들이 그 개천에 가서 모두들 너나 할 거 없이 목욕하고 잤어. 지금은 없어졌는데 그 천(川) 위로 나무가 많았어. 그럼 거기가 캄캄해서 잘 내려다보이지가 않아요. 그래서 저녁에 밑에서부터 아줌마들이 수건 하나 들고 올라오면서 “누구야” 부르면 나오고 “누구야” 부르면 나와서 내려가서 목욕하고 서로 등도 밀어주고 비누칠도 해주고 이랬던 거 같아. 우린 어렸을 때 덩달아 재밌어서 거길 따라다닌 거지. 옛날에는 큰 바위도 많았는데 그 바위도 다 어디 갔는지 몰라.



정릉천에서 야유회



1960년대 정릉천 일대(성북구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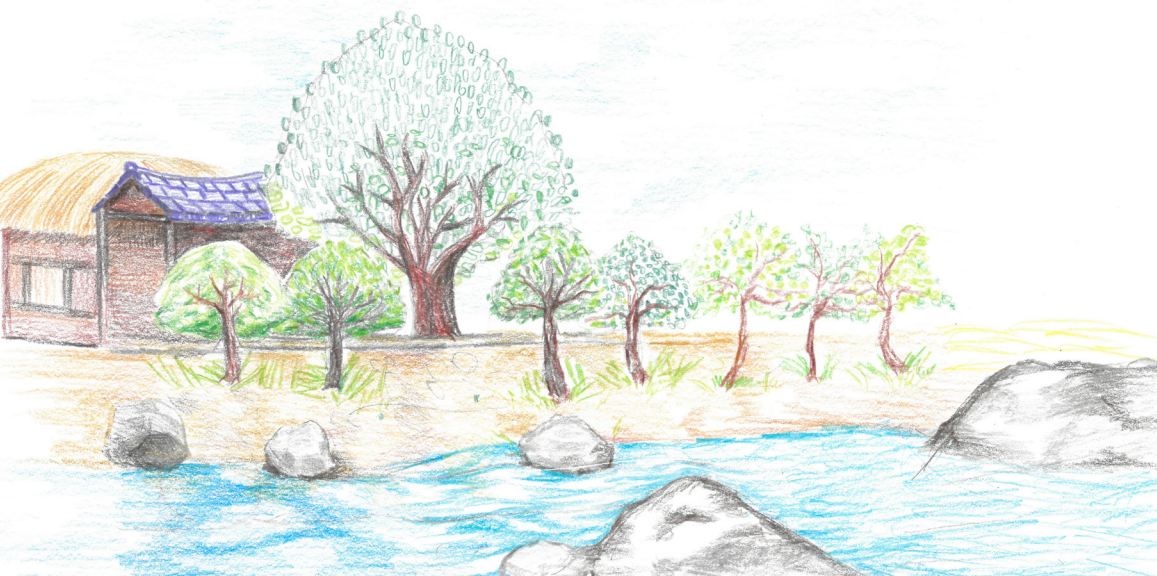
정릉에 만식이 다리라는 돌다리가 있었어요

지금 정릉에서 길음시장 나오는 버스길 있지? 그 밑이 지금 하천이고, 물이에요. 정릉천이 그쪽으로 내려간 거고. 아리랑 시장, 그 정릉에서 내려오는 쪼끄만 하천이 또 있어요. 거기다 지금 복개가 되어있어. 그래서 옛날에 거기에서 정릉에서 이렇게 오면 바로 3동에서 2동 건너는 만식이 다리¹²가 있었어. 그 돌다리가 있었어요. 비가 많이 오면 그 다리가 물이 막 넘쳐. 그래서 버스가 많이 잠겨서 건너가고 그랬어요. 옛날엔 그 다리하고 또 미아리에 길음시장 나무다리 그거 있었고. 까맣게 나무다리가 있었고. 지금은 복개를 해서 덮어서 그렇지 그쪽으로 물이 흐르고 있어요. 청수장 부터 내려오는 물이 흐르고 있어요.



정릉천 상류(성북구청, 2007)

12 위치와 다리의 특징을 서술하는 모습이 정릉2동 파출소 앞 하나은행 쪽에 있었던 ‘만세교’라는 다리를 말하는 것으로 보인다. 만세교는 지금은 모두 메워져서 그 흔적을 찾아보기가 힘들다. 이 다리는 매우 낮아 비가 조금만 많이 와도 물이 다리 위로 넘쳤다고 한다.



과거 손가정 천변 풍경

들국화 천지였던 사촌 밭에 가는 길

내가 학교 다닐 때 정릉 주변이 다 산이었어요. 포도밭도 있었지만 크지는 않고 소규모로 개인이 가꾼 것들이고. 배밭골¹³ 국민대학교 맞은편도 다 산이었고. 국민대학교 자리가 우리 셋째 큰아버지네 논 밭이었어. 거기에 국민대학을 지은 거지. 국민대학이 있기 전에 국학대학이 있었어. 처음엔 국학대학이 있었고, 다음에 그 자리에 고려대학에서 들어와서 고려중학교(고려대학교 사범대학 부속중학교)가

13 배밭골은 정릉3동을 가로 지르는 큰 도로에서 국민대학교 건너편의 남쪽 아랫마을을 말한다. 1959년 정원주택의 설립 이후 배밭골 일대에 주거단지 건설이 가속화 되었고 1969년 스카이라파트가 세워지게 된다. 1960년대 이후가 되어서 배밭골 일대의 거주민들이 늘어나기 시작했다.

된 거 같아요.

거기를 넘어서 큰집 밭에 심부름을 갔었어. 거기 사촌이 나하고 동갑인데 지금은 죽었어. 사촌 오빠가 거기 살았는데 심부름을 가면 사촌이 혼자 가기 싫으니까 나를 부르러 와. 그럼 꼭 같이 다니고 그랬어. 걸어서 밭에 가는 길에 들국화, 당시에는 가을에 국화꽃이 얼마나 이쁘고 향이 좋았는지 몰라. 지금은 거기에 들국화가 없는데 옛날에는 그 길에 국화가 사방 천지였지.

봄이 오면 산나물 뜯으러 가고

나 어릴 적에는 큰집 밭에 냉이 뜯으러 다녔어요. 냉이랑 썩도 뜯었어요. 우리 큰집 논밭이 컸거든요. 봄이 오면 많이 뜯지도 못하면서 너나 할 거 없이. 바구니하고 칼 들고 냉이 뜯으러 가자고, 썩 뜯으러 가자고, 많이 다니고 그랬어요. 봄되면 버들강아지 꽃 꺾으러 다니고. 옛날에는 진달래도 피기도 전에도 꺾고 그랬어요. 큰집 밭에서 가져온 냉이나물로 음식 해먹고 그랬지요.

큰집 밭에 냉이 뜯으러 다녔던 기억 말고는, 경국사(慶國寺)¹⁴마당에 있던 버섯이 생각나. 절 마당에 가면 버섯이 너무 많았어. 그때 나에게는 먹는 버섯인지, 못 먹는 버섯인지는 몰랐어. 버섯이 너무 많

14 성북구 보국문로 113-10(정릉3동 753)에 자리한 사찰이다. 고려 충숙왕 12년(1325) 율사 정자(淨慈)가 청암사(靑巖寺)라는 이름으로 창건하였고, 공민왕 때에 지공(指空)선사가 머물면서 고승대덕의 수도처로 알려졌다. 17세기 초 조선 현종 때에 이름이 경국사로 바뀌고, 몇 차례의 보수와 증축을 거쳐 현재의 규모를 갖추었다. 경국사 주변은 산과 계곡이 어우러진 휴식처로서 예로부터 사대부들이 많이 찾던 곳이다.

은 거야. 그래서 버섯을 한소쿠리 따갖고 왔는데, 엄마가 버섯을 보더니 먹는 버섯이라 그래. 그래서 신나서 또 가서 따오고 그랬어. 어려서는 버섯이 그렇게 많았어. 정릉산 주변이 청정 지역이라 그런가 봐. 지금은 씨도 없는데. 경국사 뿐만 아니라 주변 산에도 그렇고. 아주 버섯들이 천지였어.

봄이 오면 엄마들 산나물 뜯으러 가잖아? 그러면 막 쫓아다니기도 했어. 옛날에는 산나물도 굉장히 많았어요. 지금도 난 산나물을 먹고 싶어. 그냥 산나물이 아니라 우리엄마가 뜯어온 산나물. 초고추장에 묻혀주시면 너무 맛있었어. 그걸로 된장국도 끓여주시고, 진짜 그런 맛있는 산나물 너무 많았고. 엄마랑 엄마 친구분들하고 함께 산나물 뜯어 오시고, 그걸 다시 삶아서 묻혀주시고, 된장국 끓여주시고. 그거 진짜 지금도 많이 생각나고 먹고 싶어. 요즘 산나물은 그런 맛이 안나.

집 주변에 북한산 고아원이 있었어요

제가 고아원에 대한 기억이 좀 많아요. 집주변에 고아원이 있었어요. 북한산 고아원이라고 전쟁고아들 모여 있는 곳. 근데 제가 알기로는 옛날에 그 고아원 자리에 경신학교¹⁵가 있었어요. 경신학교가 고아원 전체 땅 일부분에 있었던 거지. 그러다가 학교가 없어지면서

15 경신학교는 1885년 선교사 언더우드 목사가 창립하여 정동 32번지에서 아이들을 가르치기 시작했다. 1905년 학교 이름을 '경신'이라 정하고, 제1회 졸업생을 배출했다. 1941년 일제 박해로 교사를 경기도 양주군 정릉리(현 성북구 정릉동)로 이전한다. 1951년 부산에 피난 학교를 개설했다가, 1955년 현 교지(혜화동 산4)로 이전했다.(출처: 한국민족문화대백과)

고아원이 되었고.

6·25전쟁 때 경신학교가 부산으로 내려갔다가 혜화동으로 이전하자 그 자리에 6·25전쟁 때 전쟁고아들을 모아놔던 거 같아요. 다른 고아들이 많이 들어온 걸 보면 그때는 고아들이 왜 그렇게 많았는지 몰라. 거기 고아원 아이들이 일요일에 어디로 예배를 보러 간다고 그러더라고. 그 이후로 사정을 잘 모르지만, 나중에 알고 보니까 고아원 원장이 고아 중 한 명을 아들 삼은 거야. 그런데 옛날에는 고아원 원장이 착취해서 부를 쌓고 그런 게 많았잖아. 그러면서 고아원이 없어진 것 같아.

그거 없어지고 한옥을 멋있게 지었어요. 쪽쪽 멋있게 지었는데, 지금은 한옥 거의 없어졌어요. 지금은 한 두 집 밖에 안남았어요. 다 빌라를 지었어.

그래도 지금 한옥이 몇 채는 남아 고자리에 있더라고. 정릉이 옛날 같지 않고, 고층을 짓게 안해주니깐 그냥 빌라로 다 짓는 거예요. 고아원이 없어지고 고아들을 어디로 보냈는지는 못 들었어요.

그 당시에 보면 매일 음악 소리가 났었어요. 음악도 가르쳤나봐. 체육 같은 건 별로 한 걸 못 봤어. 근데 음악은 많이 가르치더라고요. 피아노도 가르치고, 지금 생각하니까 플루트 같은 건가? 그것도 많이 가르치고 애들을 많이 가르치더라고요. 왜 그런지는 모르겠어.

고아원 건물 형태는 우리 초등학교 같이 벽돌로 길게 지어 가지고 칸칸이 막아서 지붕을 기와로 올렸었어요. 이렇게 일자로 짓고 또 이쪽으로 짓고 그래가지고 좀 넓었어요. 마당도 넓고. 거기 있는 한옥 저쪽 끝까지 전체가 다 고아원이니까 굉장히 넓었어요. 저쪽으로 한

동 이쪽으로 한 동 이렇게.

테두리에는 자두나무를 심었는데, 우리가 남의 자두 따 먹는다고 들어간 거야. 어려서 나쁜 짓 한 거지. 동네 오빠들이 나무에 올라가서 자두를 막 흔들면 밑에서 치마에 주워 담아. 시퍼래서 시고 먹지도 못해. 어린 시절에 그걸 왜 땀는지 모르겠어.

그리고 고아원 아래 복숭아나무가 있었는데 복숭아를 따 가지고 친구가 팬티 속에 넣으니까, 펄펄 뛰고 난리가 난 거야. 복숭아털이 좀 까슬 거려야지. 친구가 거기서 그걸 따다가 행동이 느려서 고아원 사람에게 잡혀. 그러면 잡힌 친구를 개장 속에 가둬둔다고. 그럼 그 친구 아버지가 우리 귀한 막내딸을 여기다 가뒀다고 난리를 치고는 아이를 데리고 오는 일이 있었어. 지금 생각하면 재밌는 일이 참 많았어요.



북한산 고아원 터, 외곽에 다양한 상가들이 들어서 있다.



북한산 고아원 터에 남아있는 한옥
 “지금은 한옥 거의 없어졌어요. 지금은 한 두 집 밖에 안남았어요”

또 생각나는 건 뭐냐면 고아원 밑에 담요공장 있었고 옛날에 솔밭이 있었어요. 아, 그 묘지 있었다. 어느 시내에 부잣집에서 소나무 많이 심은 데다 묘지를 썼어요. 동네 아이들은 거기가 또 놀이터였어요. 위치가 어디냐면 고아원에서 왼쪽으로 경국사 가는 길인데 그 방향이 굉장히 넓었어요. 그 일대가 산수동이라고 그랬는데 친구네가 관리를 했어요. 친구 오빠가 주로 관리를 했어요. 그래서 나랑 그 친구랑 친한 아이들은 편하게 거기서 놀고 그랬거든. 가끔 그 친구 오빠가 “나가라” 그러면 나가야 했어요.



친구들과 정릉 솔밭에서

정릉 사람들이 다 먹는 대동 우물

우물이 있었어요. 약수터는 산에 좀 가야 있었고, 우물은 우리 집에서 조금 나오면 큰길에 지금 집이 있는데, 정릉 사람들이 다 먹는 대동 우물이라고 했어. 그러니까 둘레가 이 정도 되는 굉장히 큰, 둥그렇게 우물이 있었어.

동네 사람들이 일 년에 한 번씩 청소를 해요. 물을 다 퍼내고 그 물이 다시 또 나오고 그러면 동네 큰 오빠 중에 한 사람 들어가서 청소를 하더라고. 그러면 물이 깨끗해지면 또 마시고 그랬는데. 동네 사람들이 여기저기서 와서 물을 퍼 갔어. 우리는 집이 가까우니까 바께스(바가지)로 담아서 먹고 그랬었는데. 아주 어렸을 때는 그 물 퍼다

먹었어요. 항아리에다가 물을 길어다가 붓고 그랬지. 그 후 생긴 게 펌프였어.

펌프 놓은 게 국민학교 6학년인가? (1965년 경) 그 정도 됐을 거야. 6학년 때쯤 펌프를 났고, 중학교 들어가면서 수도도 났어. 그때 막 수도가 들어왔어. 펌프를 놓아도 우물이 있었는데, 그 우물을 막으면 안 된다고 동네 사람들이 그랬어. 땅 주인이 그곳을 메워버리고 거기에 가게를 세웠지. 수도 막 들어오면서 그 집에서 수도물을 진짜 팔았었어. 옛날에는 수도물도 팔아서 사람들이 사다 먹었잖아요. 그럼 동네 사람들이 지게 지고 와서 그 물도 사다 먹고 그랬어. 밑에 마을에는 우물이 또 있었어요. 그 동네에서는 안 오고 위에 사람들은 많이 왔지. 우물이 군데군데 있었어. 우리 집 가까운 곳 우물이 제일 컸어요. 사람도 제일 많이 살았고. 그 위로는 집들이 드문 있었지만, 우리 집이 중심이어서 집들이 제일 많았었던 거 같아.

팽으로 만두 해 먹고 그랬어요

우리 어렸을 때 정릉 산에 팽이 많았어요. 그래서 팽을 잡아다가, 팽을 닭볶음 해 먹듯이 해 먹어도 맛있어요. 팽으로 만두 해 먹고 그랬어요. 또 콩 있죠. 구멍을 뚫어가지고 거기다 약을 넣어. 그걸 뿌려 놓으면 팽이 먹고 아침에 죽어 있어. 팽을 주워서 내장을 빼버리고 살만 먹어. 옛날에 총이 있어 뭐가 있어. 그러니까 그렇게 했지. 토끼는 털을 놔 가지고 잡았어. 옛날엔 정릉 사람들이 토끼도 많이 잡아

먹었어.

우리 엄마가 야채빵을 잘 해주셨어요. 뒤집어도 되는 동그란 틀이 있었어요. 야채빵에 콩도 넣고, 당근, 야채를 골고루 넣어서 해주시면 그게 참 맛있었던 것 같애.

그리고 차조인절미! 차조(찰기가 있는 조)가 녹색이 나더라고. 좁쌀을 찌요. 찌가지고, 절구에다가 쿵쿵쿵 찧어. 그러면 아주 차지게 되더라고. 인절미랑 똑같이 하는 식이야. 그러면 인절미 내내 똑같이 쓸어가지고 콩가루 묻혀 놓으면 난룻불에다가 구워 먹고 그랬던 것 같아. 그거 우리 엄마도 잘하셨어. 차조 인절미는 우리 집에서만 했어요. 우리 할머니한테 배운 것도 많긴 많아. 우리 할머니 음식이 조 선간장 사용하고 해서 똑딱 잘 만드셨어. 우리 할머니가 음식을 맛있게 잘하셨어.

돈암동은 전차를 타고 길음시장은 물건을 사고

아주 옛날에는 버스가 없었어요. 그래서 돈암동까지 걸어 나가곤 했었는데 이후에 동대문까지 가는 버스가 생겼지. 그 전에는 버스가 있어도 돈암동 정도는 걸어 다니셨어. 그때는 정릉 장이 그렇게 크지가 않거든요. 동대문 시장이나 길음 시장을 많이 가셨어요. 저 어렸을 때 엄마가 돈암동까지 걸어가셔서 거기서 전차를 타고 동대문 시장을 가신대요. 광장시장이죠. 그 시장을 다니셨다고 그러더라고요. 돈암동은 전차를 타기 위해서 걸어갔고 길음시장은 물건을 사기 위

해서 갔어요. 왜냐면 정릉시장은 쪼그맣고 비싼데 길음시장은 그때 굉장히 컸어요. 옛날에는 길음시장이 굉장히 넓었어. 돈암동 사람도 길음시장으로 오고, 정릉 사람도 오고 미아리 사람도 오고. 지금 차 다니는 길이 원래 하천이에요. 그 하천을 끼고 길음시장을 가는 거야. 가다 보면 우리 송덕국민학교 입구고, 하천으로 난 길을 따라 길음시장을 가고. 우리 동네에서는 다 하천을 끼고 다녔는데 복개를 해놔서 지금 큰 길이 된 거지. 정릉 기차순대국가게 앞에도 시장이었는데 1988년 전후로 복개해서 정릉천 옛 모습을 복구했어.

“야 청수장으로 버들가지 꺾으러 가자!” 그래요

제가 어렸을 때 청수장이 굉장히 먼 거리였어요. 그래서 친구들이 봄이 되면 얼음이 잘 녹지도 않았는데 “야 버들가지 꺾으러 가자!” 그래요. 친구들하고 청수장을 가면, 얼음이 녹지도 않은 곳에 가서, 버들강아지가 눈도 잘 안 나왔는데, 그걸 꺾으러 가고 그랬어요. 놀다 보니까 물에 빠진 기억도 있고. 엄마한테 혼날까 봐, 나뭇가지 주워서 불 피운 뒤, 그렇게 옷도 말리고 오고, 신발도 말리고 오고, 그런 기억이 있어요. 저도 청수장을 많이 가 보지는 않았어요. 그때 청수장에 갔을 때는 굉장히 넓은 흙 모습밖에 못 봤어. 어렸을 때 거기 가 요릿집이었고, 그러다 아줌마, 아저씨들이 사교춤을 추는 것도 봤어요. 옛날에는 시내에서 주말마다 많이들 놀러 오셨어요. 그리고 청수장에 위에 수영장이 생겼는데 수영장에서 사고가 났어요. 그 이후

론 폐쇄된 거 같아요. 청수장 자리는 지금 북한산 관리사무소예요.
 좀 한참 올라가면 수영장이 청수장 위에 있고.



정릉 청수장 전경(성북구청, 1991)



과거 청수장 터는 국립공원관리공단이 매입하여
 북한산국립공원 탐방안내소로 사용하고 있다.



정릉계곡과
 청수장터 표석

정릉이라는 데가 너무 초라해진 것 같애

어렸을 때는 배밭골 쪽에서 물 내려오고 청수장에서 물 내려오고, 굉장히 아름다운, 예쁜 마을이었어요. 청수장을 갈래면 나무들이 울창했고, 굉장히 예쁜 마을인데 지금은 그 산이 없어지고 다 집이 들어선 거잖아요. 그니까 이거는 내가 보기에요 정릉이라는 데가 너무 초라해진 것 같아. 정릉이 원래대로 돌아갈 순 없을 것 같아. 어떻게 원상복구가 되겠어요?

정릉이 옛날에는 부촌이었어요. 굉장히 부촌이었는데 지금은 좀 변해가는 것 같아요. 그래도 아직까지 정릉이 좋긴 좋은 것 같애. 서울 시내는 30분 내에 다 갈 수 있잖아. 우리가 아주 어렸을 때는 정릉에 여름에도 추워서 이불을 덮어야지만 잤어요. 한여름에도 산바람이 내려와서 이불 안 덮으면 못 잤어. 근데 지금은 그런 게 없잖아.

우리 집을 비롯해 지금 정릉 골목은 아직도 개발이 안 되어서 그대로 있어요. 집만 다시 짓고, 아니면 그냥 옛날 초가집을 개조해서 지금 사는 집들도 있고, 개조한 집이 많아요. 지금 빌라 짓고 하는 데는 거의 집들이 없든 데예요. 우리 집이 옛날에 있을 때는 영단주택¹⁶이라 부르던 주택들이 좀 있었고, 서경대 있는 쪽은 동방주택¹⁷이라고

16 영단주택(營團住宅)은 일제강점기 조선주택영단을 통해 건설된 주택형태이다. 일본에서는 서민계급의 주택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공급되기 시작한 주택유형이지만, 식민지 조선에서는 전시체제하에서 일제가 조선의 병참기지화를 위해 건설한 군수산업체에 근무하는 노동자의 주택부족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공급된 주택이다. 1941년 6월 14일 총독부령 제23호로 조선주택영단령이 제정 공포되고, 같은 해 7월 1일에 설립된 조선주택영단에 의해 건설되었다.(출처: 한국민족문화대백과)

17 과거 정릉1동에 있었던 동방주택은 도시형 한옥의 특징을 잘 나타내었다. 1962년경 삼성생명의 전신인 동방생명보험 직원용 주택으로 지어졌으며, 현재 대부분 재개발되어 몇 채만 남아있다.

우리가 그랬어. 집들을 비슷하게 지었다가 지금은 허물고 다 빌라들을 지어 놓았더라고. 그때 우리 손가정이 살던 데는 대부분 그대로 집이 있고 세계로 마트 뒤쪽에 푸르지오 아파트만 새로 지은 거야. 성원아파트 자리는 청수 당면을 널던 자리야. 지금 청수 냉면 있죠? 당면 널던 자리고 그 위쪽으로는 거의 변한 게 없어요. 우리 집도 그렇고. 집 지은 지가 지금 뭐 50년이 넘었나? 50년이 넘었어. 이제 60년 되어가나 봐.



정릉동 솔밭은 개발되어 빌라와 상가가 들어서 있다.
현재 보호수 한그루만 남아 있어 당시에 솔밭이었음을 알려준다.



과거 정릉동 솔밭임을 알려주는 보호수

개천으로 놔뒀으면 참 좋았을 건데

새마을운동 나는 안했는데, 아주 어렸을 때는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밖에 나가서 빗자루 들고 마당 쓸었어. 또 삼들고 나서 길 복구하고 그런 거 있었어요. 나는 새마을운동은 안해봤어요.

개천이 덮어진 거는 정확히 기억은 못하겠는데, 한 30-40년 되었나 봐. 개천으로 개방되어 있다가, 40년 전에 위에 길이 생겼다가 다시 뜯어버렸지. 정릉이 좀 길이 넓으면 나머지는 개천으로 놔뒀으면 참 좋았을 건데, 그걸 다 막았잖아. 차 다니는 길이 좁으니깐.

금메달 마트 있던 자리에 시장이 있었어요. 그게 최초의 정릉시장이에요. 그 아래에 신한은행 자리가 정릉 최초의 버스 종점이었어요. 그러다가 개발되고 주택 같은 게 생기니깐 자꾸 위로 지금 청수장까지 올라갔지. 시장에는 야채도 팔고, 고무신가게, 철물가게, 다 있었어요. 해장국집도 있었고, 그 안에 옷가게도 있었어요. 진짜 시장이었고 있을 건 다 있었어. 안에 야채도 있고 별거 다 파는데 지금은 시장이 없잖아. 원래 시장이 없어지면서 개천을 복개해서 새로운 시장을 지었었어요.

예전 시장도 굉장히 컸어. 근데 또 구청에서 복개한 걸 다시 없애버린다고 해가지고 그걸 다 뜯어버리고 지금 그렇게 해놓은 거잖아요. 과거의 정릉시장은 없어진 거지. 지금은 말로만 시장이지 옛날의 시장 모습은 아닌 것 같아. 지금은 옛날에 길가에 있던 가게들을 시장이라 그랬는데, 그건 옛날부터 있던 거거든.



과거 정릉시장 중심, 지금은 마트가 들어서 있다.



현 정릉시장 입구

내가 정릉에서 태어난 게 좋았다는 생각을 많이 해

정릉에서 살고, 손가정의 후손으로 살면서 가끔 이런 생각을 하기도 해요. 내가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난 게 아니고, 조상 대대로 살았던 곳이니깐, 내가 태어났을 거 아니에요? 근데 여태껏 정릉에 살면서 정릉이라는 곳이 마음에 들어요. 좋아요. 내가 정릉에서 태어난 게 좋았다는 생각을 많이 해. 다른 곳보다는. 왜냐면 우리 마을 밑에 살았을 때는 그래도 다들 괜찮게 살았어.

우리가 커갈 때니깐 초등학교 5-6학년 때부터였던 것 같아. 삼양동, 서경대쪽으로 사람들이 많이 상경하면서, 그때부터 판잣집이 생기기 시작했어. 어른뿐만 아니라, 아이들도 함께 많이 올라왔어. 그 당시에는 막 집을 지어도 되었나봐. 판잣집으로 집을 짓고, 터를 잡고 살았더라고. 당시 하천 주변에는 사람들이 이미 손가정 토백이들이 터를 잡고 살았어. 그래서 그 위로인 정릉천 상류 쪽은 손가정이 없었어요. 지금 정릉4동에 위치에는 사람들이 조금 살았고. 그렇게 많지는 않았어.

우리 어렸을 때 대문을 못 열어 놓을 정도였어요. 무작정 상경했으니 필요한 게 많았을 거 아냐. 우리 어렸을 때 큰 다라이(둥글넓적한 그릇) 놓고 집에서 펌프 틀어놓고 놀잖아. 그러면 어떤 아저씨가 “나 오라” 그래. 그럼 “왜요?” 그러면 “엄마가 갖고 오랬대” 그러는거야. 우리가 다라이에서 나오면, 물 쏟아버리고 가지고 가는거야. 나중에 엄마가 다라이 “어딤냐” 고 그러면, 엄마가 갖고 오라고 해서 어떤 아저씨가 가지고 갔다고 했어요. 그런 일도 있었어요. 그리고 저녁이

면 고추장 단지까지 가져가기도 했어. 그때는 정릉뿐만 아니라 다른 곳도 힘들기도 했지만, 정릉 토박이들이 살기가 힘들었어.



정릉천 상류(성북구청, 2007)



정릉천 상류와 주변(성북구청, 2007)

14

빛나는 요리사



한전을 그만두고 양품점을 했어요

결혼하기 전에 첫 번째 직장이 한전이었어요. 지금 정릉동 집에서 버스 타고 마장동까지 출퇴근을 했지요. 전기에 필요한 자재창고 같은 게 있었어요. 한국전력을 그만두고 명동 코리아나 백화점에서 양품점 했어요. 젊은 여성들 옷, 정장을 많이 팔았지. 처음에는 중학교 동창 친구가 코리아나에서 양품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걸 보는 순간 너무 하고 싶은 거예요. 사람들은 미쳤다고 그랬어요. 좋은 직장을 접고 왜 그걸 하느냐고. 그래도 한전을 그만두고 양품점을 했어요. 이대 학생들이 많이 왔어. 3년 동안 백화점에서 일했는데 오래 못했어요. 백화점이 제일 백화점으로 바뀌면서 백화점에서 돈을 너무 달라고 해서 접게 되었어요.

출퇴근은 돈암동, 미아리고개로 왔다 갔다 했는데, 퇴근하고 집으로 오면서 동네 쪽을 보면 집이 점점 많이 생기더라고 산을 다 없애고. 집이 많은 것 밖에는 생각이 안나. 옛날 동방주택 자리도 다 산이었고, 지금 정릉 청수장 올라가는 쪽도 다 산이었어요. 정릉에서 나오는 길도 그렇고, 송덕초등학교 뒤부터 다 나무였어.

수녀원 빼고는 다 산이었어. 수녀원도 원래 산이었어. 수녀원 밑으로 주르륵 우리 큰집 발이었어. 근데 지금 다 집 들어섰잖아. 여기는 원할머니 집이고, 이거는 셋째 큰엄마네 집. 다 산이었어요. 근데 지금 대우주택이니 뭐니, 산장이니 뭐니 다 산이었는데. 그게 다 생긴 거지 집이.

요리사의 길을 이끌어준 고마운 선배님

내가 요리에 관심이 있어가지고, 백화점을 그만두고 요리를 배우기 시작했지요. 말만 대학이고, 기술 배우는 곳에서 1년 정도 요리를 배웠어요. 요리 배우는 데서 한 선배님을 우연히 알게 되었어요. 조금씩 친해지다가 선배님이 자녀가 없는 걸 알게 되었어. 근데 그 선배님이 처음에 나를 딱 보시더니, 자기 심부름을 좀 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여러 가지 심부름을 해드리면서 친해졌는데, 선배님이 아파서 병원에 계실 때도 심부름을 많이 해드렸어. 그래서 많이 친해졌어.

요리 선배를 잘 만났어요. 당시에는 내가 아직 자격증도 안 땀어.

근데 내가 손재주가 있었나 봐. 선배님을 따라다녔고, 그 선배님은 나를 끝까지 데리고 다닌 거야. 그래 갖고 요리를 많이 배웠어요. 그 당시에는 요리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물어보지도 않았고 또 선배들이 가르쳐주지도 않아. 근데 선배님이 하는 과정과 요리해놓은 걸 보고 터득을 해서 집에 와서 하면 되었어. 그래서 요리를 참 빨리 배운 것 같아.

그 다음부터 출장 요리를 하러 다닌 거지. 선배님을 따라다녔는데, 여러 유명한 집에도 갔었어. 따라다니며 요리를 배우다가 우리 선생님이 풍끼(뇌졸중)가 오셨어. 선생님이 자녀도 없어서 나한테 잘해주셨는데 풍끼가 오셔가지고, 내가 선생님을 대신해서 출장요리를 다니게 되었어.

자격증은 늦게 땀어. 자격증은 2006년도 즈음에 땀어요. 그때 누가 요리 시험이 있다고 그러더라고. 처음으로 시험을 봤는데 한식하고 양식을 한꺼번에 붙은 거야. 근데 선생님이 한 번에 붙는 것보다 자꾸 떨어져서 실력을 쌓는 게 좋은 거라고 하더라고. 아무튼 자격증은 늦게 따고 요리부터 한 거야. 가정집 요리는 자격증 보는 건 아니니까.



페백 음식(요리사생활 첫 작품)



야채로 수놓은 닭요리



전복 요리



상어 요리

해외 한국대사관 요리사를 시작하다

내가 출장요리를 하다 보니깐 거의 잘사는 집만 다녔어요. 그러다 보니 한 후배가 나한테 자기 지금 에티오피아 대사관에 있다고 연락이 온 거야. “언니 나 에티오피아 대사관에 있어. 언니도 출장요리 하지 말고 외국에 가라” 는 거야.

그리고 유명한 요리사 남자 분, 지금 텔레비전 알토란에서 임짱(임성근)으로 나오더라고. 그분이 나를 미국에 소개해줬어. 샌프란시스코 영사관에. 그래서 처음 외국에 간 곳이 거기예요. 오래 있지는 않았어요.



미국 샌프란시스코 총영사관에서 일할 때

게다가 한국국제협력단(KOICA)에 계신 분한테도 전화가 왔어. 외국에 자리가 났는데 가겠느냐고. 그래서 한 번 외국에 가게 된 게 자꾸 가게 된 거지. 보통 해외에 한 번 가면 3년 있어야 하는데, 지금 법이 바뀌어서 1년 있어도 되고, 2년 있어도 되고, 자기가 있을 만큼 있으면 되고. 난 해외에 꽤 오래 있었어요.

근데 처음으로 간 미국 샌프란시스코(San Francisco)에는 오래 안 있었어요. 왜냐면, 한 후배와 전화 통화를 했는데 “언니 왜 미국을 갔느냐”고 그러는 거야. 지금 개발도상국을 가야지, 선진국에 가면 힘이 든다는 거야. 거기서 밑에 일하는 사람의 월급이 세니깐, 직원 수가 적어서 힘들니깐 무조건 개발도상국을 가라는 거야. 그래서 내가 미국에서 오래 안 있었어요. 한 1년 있었나? 미국은 힘이 들긴 했어요. 와서는 에티오피아(Ethiopia)에 갔는데, 너무 좋았어요. 저는 고급보다는 촌스러운 게 좋아서, 에티오피아에서는 정말 좋고 잊

을 수 없는 일이 굉장히 많았고요.

에티오피아는 미국에서 돌아온 지 1년 후에 갔어. 에티오피아에서는 한 2년 있었던 같아. 그 다음에는 네팔(Nepal)갔어요. 네팔은 세 번을 갔어요. 거기가 너무 마음에 들어가지고. 네팔 사람들은 너무 순수하고 때 묻지 않았어. 거기에는 2년 정도 체류하다가 한국 들어와서 좀 쉬다가, 다시 네팔 가고 그런 식이었어. 아참! 네팔 한번 갔다 오고 중간에 러시아(Russia)를 갔었어. 러시아는 2010년인가? 그 즈음 갔어. 러시아 갔다 와서는 유럽에 있는 벨기에(Belgium)에 갔지.

근데 외국에 나가면 1년씩 쉬었어. 쉬는 동안에는 출장요리를 했어요. 대사관 요리사는 기본적으로 지원해서 가는 거긴 하지만, 자리가 나면은 가고, 자리가 안나면 골라서 가는거야. 갈 수 있는 자리 중에서 말이야.

누구든지 개발도상국으로 가려고 그래, 선진국에는 잘 안가. 일 해주는 사람이 월급이 높으니깐 도와주는 사람 딱 한사람만 줘. 그럼 힘들어지잖아. 근데 네팔이나 에티오피아의 경우에는 보조로 도와주는 사람들의 일당이 싸니깐 많아요. 근데 미국에는 절대 그런 게 없어. 그래도 보조는 꼭 두 명이 있지. 나가보면 거기서 일 해주는 사람은 대사관에서 오래 일을 해서 그런지 한국 사람보다 음식을 더 잘해. 김치도 너무 잘해. 내가 간만 맞춰주면 돼. 한국대사관 요리사로 일한 건 네팔이 마지막 나라지. 마지막은 몇 년 전에 다녀 온 거야. 지금은 출장요리가 너무 힘들어서 손을 놓은 상태고.

네팔을 갔는데 거긴 진짜 일도와주는 직원들이 너무 많아 가지고

손 하나 까딱 안 해도 돼. 음식을 하려고 하면 직원들이 대사관에 오래 있어서 알아서 소금으로 배추 절이고 무채 썰어놓고. 직원들이 배춧속 다 넣고. 난 굉장히 편하게 있었어요. 직원들은 다 그 나라 사람들인데 대사관에서 오래 일을 했기 때문에 너무 잘 아는 거야. 한국 사람보다 음식을 더 잘해.

사람들이 너무 순진하고 거짓말 안 하고 제가 아침에 6시에 일어났는데 6시에 주스를 딱 짜서 서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1분도 지각을 못해요. 일어나서 그거 먹고 나면 벌써 목욕탕에 물 받아놔어. 그러니까 그 사람들에게 너무 고맙고.

이후로 네पाल을 못 잊어서 다시 갔어요. 돈 벌려고 간 것도 아니고, 여행으로 간 것도 아니야. 예전 네पाल에서 식당하는 친구를 만났어. 이 친구는 내 인생에서 제일 좋은 인연을 만났다고 해야 할까. 이 친구를 만나러 네पाल을 간 거죠. 이 친구하고 인연은 식당일도 좀 도와주고, 여행을 함께 많이 다니면서 친해졌어. 한국 사람이고, 네पाल에서 식당을 20년을 했어. 왜 정확히 기억하냐면 올해가 딱 20년이라서 그래. 나이는 나보다 한 살 어린데 너무 착하고, 사람이 뭐랄까 거짓 없이 착한 사람이야. 내가 해외를 다니면서 이 친구를 너무 잘 만났다고 생각해. 진짜 참 너무 좋은 친구 만났어.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한국에 들어와 있어요. 내가 요즘 일이 바빠서 못 만나고 있어. 내가 보고 싶어서 몸살을 앓고 있다고 해. 금요일에 바쁜 일이 끝나면 볼 수 있다고 하니, 너무 좋아해. 산에 다니자고.

왼쪽에는 가축이 있고, 오른쪽에는 불씨가 있어

네팔사람들은 너무 순수하고 좋아. 환경도 안 불편해요. 큰 마트도 있고, 볼거리도 있고 재미있어요. 큰 도매상 같아요. 가보면 야채가 너무 싸고 맛있고 싱싱해. 땅이 좋아서 그런가봐. 당근은 12월 달에 먹으면 아삭 하면서 사과 맛이 나.

에티오피아에서는 기억나는 게 뭐냐면, 주민들 집에 간 적이 있어요. 물론 도시지역은 다르겠지만, 보통 시골에 가면 그 사람들은 동그란 집에서 많이 살아요. 거기 들어가면 왼쪽에는 염소라던가, 가축이 있어. 동물도 재산이 있는 사람만 있어. 오른쪽에는 불씨가 있는데 항상 불이 살아있어. 불씨는 어느 집에 가도 항상 있어. 그리고 그릇이 있는데 감자 삶아먹고 하는 그릇. 우리가 고추장통이나 1회용 통 같은 거는 우리나라 제품이 튼튼하고 좋잖아요. 그런 통들을 사용하고 밖에 재활용하는 곳에 놓아두면, 그걸 활용을 해요. 그건 물 뜨러 다닐 때 사용하려고 그래요. 그 사람들은 가볍고 튼튼한 그릇이 잘 없어서 무거운 토기를 들고 다니니깐. 걸음마만 배우면 무조건 수십리 길을 물 뜨러 다녀야해. 알다시피 아프리카에는 물이 귀하고 잘 없잖아. 비도 안오고 하니깐. 땅이 짹짹 갈라져서 식물을 심을 수가 없어요. 거북이 등짝 같아가지고.



에티오피아 대사관에서 일할 때

브로큰 잉글리시로 말해도 요리로 다 통하거든요

러시아도 갔어요. 러시아는 공산국가라서 그런지 처음 가서 깜짝 놀랐어. 무서워요. 근데 러시아 사람들은 좀 너무 딱딱해요. 대사관은 어느 나라 가든지 다 영어를 쓰는데. 근데 나는 잘하지는 못하지만, 직원들이랑 브로큰 잉글리시(broken english) 해도 어느 정도 통하거든요. 근데 러시아 사람들은 영어를 안 해요. 그래서 러시아에 갔다가 일주일 만에 집을 잃어버려가지고 너무 혼났어요. 지하철을 타고 가다 잘못 타서 내렸는데 제가 러시아어를 하나도 모르잖아요.

일하는 러시아 직원하고 같이 나갔는데, 그 친구는 러시아어를 하고 우리말을 모르고, 나는 러시아말을 모르잖아. 근데 이 친구가 일을 다 같이 보고 먼저 대사관에 들어가라고 하더라고. 본인 볼일 보러 가야 된다고. 그래서 내가 알았다고 했는데 일이 터진 거지. 앞으

로 몇 정거장 가면, 반대로 뒤로 몇 정거장 오면 되는 거잖아? 내가 잘 몰라서 한 정거장을 앞으로 더 간 거야. 출구로 나갔는데 이상하게 모르겠더라고. 당황해가지고 젊은 러시아 사람들을 붙잡아서 물어보니깐 영어를 다 몰라. 핸드폰 배터리리는 거의 다되어가고.

마침, 영사부인 전화번호가 있었어. 영사부인이 러시아를 할 줄 알았어. 일단 아무나 붙잡아 놓고선 영사부인에게 옆에 있는 사람을 바꿔줬어. 아, 그러기 전에 내가 택시를 먼저 물어봤어. “한국대사관에 가는데 얼마냐” 라고 물어보니깐, 만약 한국대사관까지 가는 게 500원이면, 5,000원을 달라는 거야. 너무 비싸가지고 안탔지. 아무튼 영사부인한테 전화해서 우선 “택시비를 이렇게 요구한다” 라고 하니, 절대 타지 말고, 옆에 사람 바꾸래. 옆에 사람을 바꿔줬더니, 그 사람이 올바른 방향을 알려주면서 그쪽으로 가서 타라고 해서 온 거야.

그래서 그걸 타고 나왔는데, 재미난 건 대사관 찾아가는 길도 잊어버린거야. 길이란 환경이 너무 낯설었나봐. 그래서 전화를 걸어서 길 가는 사람 아무나 바꿔줬죠. 다급하니깐 뭐 상황보고 할 게 없었어. 아주 그냥 얼마나 혼났는지. 그 뒤로는 잘 타고 다녔지. 말이 안 통하니깐 너무 힘들더라고. 영어로 누구 물어보면 젊은 사람들도 하나도 몰라요. 영사부인의 도움으로 겨우 찾아왔어요.

한식을 맛보고 연거푸 “원더풀, 원더풀”

다른 외국 대사들이나 외국 손님을 초청했을 경우에 우리 한식을

해요. 그리고 음식이 코스로 나가요. 파티하는 거 보면 진짜 멋있어. 은쟁반 먼저 놓고, 큰 사라(접시) 하나를 놓고, 요리 접시가 올라가. 와인잔, 물잔, 술잔, 여기 잔만 한 다섯 개 놓아. 나이프, 포크, 숟가락, 젓가락, 이렇게 다 놓고. 한 사람 세팅하는 것만 해도 대부분 저렇게야. 처음에 냉채, 죽, 잣죽, 전복죽 등을 내가고, 다음에 찬 음식 나가고, 더운 음식 나가고, 이렇게 하는데. 외국 사람들은 우리나라 음식을 너무 좋아해요. 잡채, 불고기, 갈비찜, 구절판. 잡채도 잘 먹지만, 고기 종류도 좋아하고. 구절판, 그거 밑쌈에다 하나씩 색색가지 싸서 잡숫는 거, 야채를 너무 좋아하더라고. 신선로도 보면 색스럽고 예쁘잖아.

그래서 우리나라 음식 먹고 나면 계속 “원더풀, 원더풀” 하는 사람 많아요. 신선로도 신기하잖아. 밑에서 따뜻하게 해주면서, 고기, 야채, 견과류까지 다 올려, 은행, 잣, 호두 있고. 다들 너무 좋아하셔. 우리나라 음식 보면 너무 예쁘다고 좋아하셔요.

음식에 고명에 거진, 계란 지단하고 석이버섯이 올라가는데, 우리나라 국수, 국수장국 거기에다가 석이지단, 계란지단, 요런 거해서 색스럽게 하면 굉장히 신기해 하셔. 이게 뭐냐고. “이게 버섯이다” 그러면 “이런 버섯이 있냐” 고. “바위에 돌에 나는 버섯이다” 그러면 더 신기해 해. 떡에도 고명으로 올라가요. 막걸리로 반죽하는 증편, 석이채, 대추채, 밤채, 잣 등이 올라가지요. 생선찜에도 올라가요.

대사관에서는 한국 음식만 한 건 아니에요. 한국에서도 손님이 많이 오는데, 국회의원, 다른 나라의 대사 부부도 오시고, 그 나라의 높은 분들, 기자들도 초청하고, 연예인도 초청하고, 그런 일이 많아

요. 종교단체에서도 초청하고. 그런데 우리나라 손님이 왔을 때는 한식이 별로거든. 그러니깐 양식에서부터 뭐 일식, 중식 등 짬뽕이지. 코스 요리도 해주고. 한국 분들이 오시면 그 나라에서 나는 재료를 가지고, 러시아 같은 데는 뭐 킹크랩 같은 거 많이 나오고 철갑상어 있고 하니까 그런 요리를 해요.

새벽 장보기부터 저녁 디저트까지, 앉아 있을 틈이 없지

한국에 와서 다시 출장요리를 하는데, 현재 같이 손발 맞추어서 다니는 후배가 한 명 있어요. 나이는 나랑 비슷해. 동갑이야. 근데 내가 처음부터 데리고 다녀가지고, 후배는 다른 사람은 한 번도 안 쫓아가 봤어. 나만 계속 쫓아다녀서 현재 요리를 잘 하셔.

근데 요즘 젊은 사람들이 요리가 힘들어서 안 하려고 해. 누가 진짜 요리에 취미가 있는 사람은 내가 가르쳐주고 싶어. 자격증을 따고 기초 요리 할 줄 아는 사람 있으면 내가 해외 파티요리 같은 거, 코스 요리 몇 개 가르쳐주면 머리 좋은 사람은 자기가 응용해서 잘하거든. 지금 젊은 사람들이 조금 하다가 안 하더라고. 힘들다고.

왜 그러느냐면, 출장 요리를 데리고 가 보면 아침에 일어나서 새벽에 장 봐야지. 음식 하루 종일 해야 하지. 저녁에 과일까지 깎아주고 오거든. 요리사는 설거지는 안 해줘요. 그러니깐 코스요리 끝나고 밥하고 국 나가고 과일만 깎아주면 오거든. 그러니깐 쫓아가보면 너무 힘들거든. 하루 종일, 새벽부터 저녁까지 하니깐. 우리는 그게 몸에

배어서 되는데 젊은 사람들은 처음에 가면 못 견뎌. 새벽에 잠이 부족해서 힘들지, 하루 종일 서 있어서 힘들지.

남자는 호텔요리사로, 여자는 출장요리사로

예전에는 요리를 배우고 취직하려고 하면, 호텔이나 이런 데는 남성을 많이 뽑았어요. 여자를 안 뽑았어요. 기운 못 쓴다고. 호텔은 큰 통 같은 거를 막 들고 옮기고 해야 돼. 지금은 호텔이 분업화가 되어서 여자들이 좀 더 쉬운 것 하고 하는데, 옛날에는 안 그랬어요. 그래서 예전에는 여자들은 출장요리를 많이 나가고 남자들은 호텔 분야로 많이 나가고 그랬어요. 남자들은 식당 쪽 같은 데도 가고. 우리 출장요리 하는 사람들은 음식점 하고도 안 맞아. 음식점은 대부분 조미료를 많이 사용해서 하는 음식이고, 우리는 조미료가 전혀 없어요. 조미료를 안 쓰는 음식이기 때문에, 식당과 안 맞아. 분야가 다 달라.

우리나라 재벌들을 다 요리로 만났어

옛날에 전두환 대통령 시절에는 일이 너무 많아 가지고 진짜 너무 힘들었어. 그때는 골라가면서 내 마음에 드는 사람만 요리를 해줬어. 근데 그 이후로는 조금 적당하게 일이 있더라고. 그래서 좋았지.

난 이 음식을 참 잘 배운 거 같아요. 웬만한 재벌들 다 만나봤고. 뭐

SK텔레콤이니 삼성가(家)니 이런 데 많이 만나봤고. 근데 옛날에는 호텔에서 음식을 많이 했어요. 호텔음식이 멋스럽잖아. 멋스럽지만 먹을 때는 좀 그렇잖아. 입에 안 맞잖아. 호텔음식 안 시키시고 나를 불러주시는 거 보면 나도 고맙지만, 그분들도 나한테 고마워해요. 회장이 “고맙다” 고 “잘 먹었다” 고 이럴 때 보면, “아 회장이 나를 대접해주시는구나” 라는 생각도 들고. 그럴 때 보면 내가 음식 배우길 참 잘했다라는 생각을 많이 해.

모르면 힘들고, 알면 너무 쉬운 게 음식이야

요즘 정릉 사는 초등학생들이나 더 이제 태어날 아이들은 옛날 음식 해먹겠어요? 안해먹어. 햄버거 먹지.

뭐 내가 하는 음식 중에 우리할머니한테 배운 것도 많긴 많아. 우리 할머니 음식이 조선간장 사용해서 똑딱 똑딱하는데 맛있어. 우리 할머니가 음식을 잘하셨어. 근데 음식도 공식이고, 모르면 힘들고, 알면 너무 쉬운 게 음식이야. 내가 새우 튀기고, 크림소스 해놓거나, 또는 단호박죽을 해놓으면 사람들이 “아이고, 어머 여기 계란 넣었어요?” 이러는 사람이 있어요. 색깔이 노란색이니깐. 근데 그게 아니거든, 옥수수 갈아놓고 즙을 짜놓으면 더 구수하잖아?

그러니깐 모르면 어렵고, 알면 너무 쉬운거야. 나는 속으로 막 웃음이 나오는거야. 그래도 새우튀김 같은 것도 새우는 하나지만, 튀겨서 소스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맛이 다르잖아? 간판을 한다던가,

크림소스를 한다던가. 하여튼 여러 가지 소스가 많잖아. 레몬탕수육을 한다던가. 다시 말하면 알면 너무 쉬워 모르면 너무 어렵고.

단 한 가지, “내가 다달이 음식을 해서 대접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저는 손가정의 딸로서 무엇을 할까 생각해봐요. 우리 집을 노인정으로 개방할까, 하는 생각도 했었어요. 우리 동생들이 “언니 그건 안돼” 막 이러는 동생도 있고 그래서 지금 생각이 많은데, 제가 큰 기여는 못 하겠죠. 그렇지만 손씨들이 모이는 곳에 가서 제가 할 수 있는 거라곤 음식밖에 더 있겠어요? 매달 정해서 제가 뭐 음식 대접을 한다던가. 음식을 배우고 싶은 분들에게는 음식도 가르쳐주고 싶어요.

근데 제가 할 수 있는 거는 남은 어르신들 위해서 조금 불편사항이 있으면 제가 봉사 활동을 하고 싶어요. 시집은 올케언니들 많잖아요. 언니들을 지금도 길에서 만나면 길에 서서 언니들하고 한참 얘길 하는 거예요. 어딜 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부르면 가서 이 얘기 저 얘기 하다 또 막 뛰어가야 되고. 그 언니들도 모임이 있어요. 정릉도 오고 하는데 이제 그 언니들하고 재미있게 좀 지내볼 생각이거든요. 아직까지 크게 뭐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은 못 했어요. 그런데 단 한 가지. “내가 다달이 음식을 해서 대접해야 되겠다” 라는 생각을 했어요.

에필로그Epilogue

손명옥 선생님께서 평생 간직하실 그리고 후손에게 물려주실 생애사를 기록하면서 잘 만들고 싶었는데, 마음에 드셨으면 좋겠습니다. 선생님의 삶을 따라가다 보니 어느덧 가족이 된 듯한 친근함을 느낍니다. 정릉에 살면서, 자주 돌아본 곳에 담긴 옛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던 것은 행운이었습니다. 함께 하는 작업이기에 가능했고, 힘이 되어 준 조원분들과 김지훈 선생님, 김영미 교수님과 성북문화원에 감사드립니다.

- 구정숙

조상 대대로 서울 정릉동에 터전을 잡고 사신 손명옥 어르신으로부터 귀중한 생애 이야기와 마을의 역사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현재 제가 살아가고 있는 정릉3동이라는 공간의 과거를 알 수 있어서 재미있었지만, 무엇보다 구술채록자로서 마을의 역사를 잇는 데 일조했다는 점에서 정말 의미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이번 작업을 하면서 적극적으로 힘써주신 모든 팀원분들께 감사드립니다.

- 양윤주

코로나로 인해 일들이 한꺼번에 몰려 바쁜 가운데에도 조원들의 힘으로 책을 완성하게 되었네요. 모두들 감사합니다.

- 정봉운

아무런 연고도 없는 정릉동에 흘러들어와 살게 되었습니다. 우연한 기회로 좋은 구술자분을 만나 제가 태어나기도 이전의 정릉동에 대해 조금이나마 알게 되었습니다. 역사 교과서에 나오지 않는, 사람의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는 그런 역사도 있다는 사실을 알았네요. 손명옥 어르신의 입에서 전해진 옛 이야기를 들으며 이제는 어렵פות이 남아있는 정겹고 아름다운 정릉동의 옛 모습을 상상해보는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생애구술사 작업이 처음이라 서툰 부분이 많았을 테지만 최선을 다해 응해주신 손명옥 어르신과 작업을 위해 함께 열심히 노력한 조원분들, 성북문화원분들께 감사드립니다.

- 조혜원

구술사라는 분야를 처음 접해 보았는데 뜻 깊은 경험이었습니다. 한 사람의 생애를 통해 한 마을의 역사까지 훑아 볼 수 있다는 사실이 놀라웠네요. 손명옥 선생님이 말씀해주신 정릉천의 복직한 풍경이 오래도록 기억에 남을 것 같아요. 저 또한 제가 보고 겪은 일들을

살뜰히 간직해 두었다가 훗날 작은 역사로 펼쳐 보고 싶다는 생각도 해봅니다. 이번 작업을 진행해주신 성북문화원과, 부족한 질문에 최선을 다해 응해주신 손명옥 선생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함께 애써주신 팀원들에게도 감사합니다!

- 최수민

오랜 기억을 더듬어 손가정(孫哥亭)의 옛 모습과 본인의 이야기를 들려주신 구술자 손명옥 어르신과 녹취를 풀고 정릉 관련 자료를 찾는 데 도움을 준 수강생 선생님들께 감사의 말을 전합니다.

- 김지훈



주민기록단(정릉천)



주민기록단(손가정 오래된 나무에서)



이미지 출처

- 14쪽 : 성종윤 촬영
- 18쪽 : 손명옥 그림
- 21쪽 : 경향신문(1972.4.4.)
- 23쪽 : 손명옥 제공
- 27쪽 : 성북구청
- 27쪽 : 손명옥 제공(우측 下)
- 30쪽 : 성북구청
- 38쪽 : 손명옥 제공
- 40쪽 : 성종윤 촬영
- 42쪽 : 서울대 규장각
- 43쪽 : 김지훈 그림
- 44쪽 : 성북문화원
- 47쪽 : 손명옥 그림
- 49쪽 : 손명옥 제공
- 50쪽 : 성북문화원
- 51쪽 : 성북문화원
- 52쪽 : 생활건축연구소
- 53쪽 : 생활건축연구소
- 54쪽 : 생활건축연구소
- 60쪽 : 성종윤 촬영

62쪽 : 손명옥 제공 (上)

62쪽 : 성북구청 (下)

63쪽 : 성북구청

64쪽 : 손명옥 그림

68쪽 : 성북문화원

69쪽 : 성북문화원

70쪽 : 손명옥 제공

74쪽 : 성북구청 (上)

74쪽 : 성북문화원 (下)

76쪽 : 성북문화원

78쪽 : 성북문화원

80쪽 : 성북구청

82쪽 : 손명옥 그림

85쪽 : 손명옥 제공

86쪽 : 손명옥 제공

87쪽 : 손명옥 제공

91쪽 : 손명옥 제공

101쪽 : 성북문화원

102쪽 : 성종윤 촬영

대대로 그 땅에서 나서 오래도록 살아 내려오는 사람을 토박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정릉3동 정릉시장 일대에서 오랫동안 터를 잡고 살아온 손가정(孫哥亭)마을의 후손이며, 여전히 그곳에서 살아가는 손명옥은 토박이입니다. 그런 까닭에 이 책은 손명옥의 살아온 이야기이자, 손가정 마을의 과거 모습과 변화에 대한 기록이기도 합니다.

이 책은 좁게는 손가정, 넓게는 정릉동의 과거 모습이 한 인물의 경험과 엮어지면서 입체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물론 손가정과 정릉의 모습이 다른 분들의 기억과 다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1999년부터 간헐적으로 해외생활을 해온 손명옥 구술자에게는 삶을 떠받치는 토대였던 정릉의 기억은 그녀의 방식대로 또렷하고 아름답게 펼쳐집니다. 또한 손명옥 구술자의 이야기 곳곳에서 묻어나는 정릉동의 애정도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